



## 총 과 효 는

연초에 본인은 이 자리를 통해, 77년을 “정신혁명을 토대로 태권도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며, 보다 굳건히 내실을 다지는해”로 밝힌 바 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대의 태권도 운동은 2천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우리 전승무도를 세계 스포츠로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우리 민족문화의 근대화, 세계화 운동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권도 혁신운동은 71년 3월 박정희대통령각하께서 방향을 제시한 뜻을 받들어, 국기로 승화된 이래, 전세계에 널리 보급되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제경기연맹 (GAIF)가입, 국제군인스포츠대회 (C.I.S.M) 경기종목 채택, 월드컵의 티켓 확보—등등 태권도가 국제스포츠사회에서 이룩한 업적은 실로 괄목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주국 국기원에서 있었던 두번에 걸친 세계선수권대회, 그리고 대륙별로 개막된 각지역선수권 대회등에 이어, 금년 가을에는 처음으로 종주국이 아닌 미국 시카고에서 세계선수권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9월 시카고의 인터내셔널 앰피디이터에서 열릴 제3회 세계선수권대회에는 무려 50여 회원국 대표팀이 참가할뿐 아니라 국제경기연맹이 승인한 공식 국제대회로서 국제스포츠사회의 비상한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즉,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하는 이번 시카고 대회는 미국체육회(AAU)가 주관하며, 미국올림픽위원회(USOC)의 후원으로 막을 올릴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세계태권도연맹 본부와 협의차, 미국올림픽위원회의 존·디·켈리 부위원장, 미국체육회의 조시아·웬슨 부회장이 지난 3월 각각 국기원을 다녀간 바 있습니다.

# 태권도 정신으로

世界跆拳道聯盟 總裁 金 雲 龍  
大韓跆拳道協會 會長

이처럼 날로 태권도의 국제적 인식과 지위가 향상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 종주국 태권도의 지도자들에게 보다 막중한 사명감과 새로운 정신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년초반에 결실을 본 각종 관의 통합은 가장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작년도에 관명칭을 폐지하고, 1-9까지의 일련번호로 대체한 이래 금년에는 태권도인들의 오랜 염원이던 태권도 각종관의 통합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사도계의 병폐가 되어온 파벌주의, 분파주의 등 반생산적 저해 요인을 제거하는 조치로서, 태권도 세계화 운동에 비추어 크게 박차를 가해줄 쾌거라 하겠습니다.

이제 태권도는 제 3의 도약을 위한 전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 3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정신혁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태권도가 서구 사회에서도 크게 인기를 얻는 이유중에는 무도로서의 우월성뿐 아니라 태권도의 훌륭한 정신적, 사상적, 배경에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은 바로 이러한 태권도의 정신을 발양시켜야 될 시기입니다.

우리 사회의 각계에서도 현하 성과를 바탕으로 한 새마음 운동이 크게 호응을 받으며, 전개되고 있습니다.

태권도 정신은 신라시대의 화랑이래 바로 성과를 근본으로 하는 호국정신에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급변하는 세계정세속에 국가민족을 위해 태권도인은 호국의 정신으로 재무장 하여야 할 때입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우리는 태권도의 기술뿐 아니라, 충효의 정신까지 전파, 보급시켜 새마음운동의 쫓붙을 전세계에 높이 밝혀야 하겠습니다.





# 미 체육회 지도자 국기원방문

## 태권도 세계화에 광범위한 토의

77년3월9일 미체육회지도자들이 국기원을 방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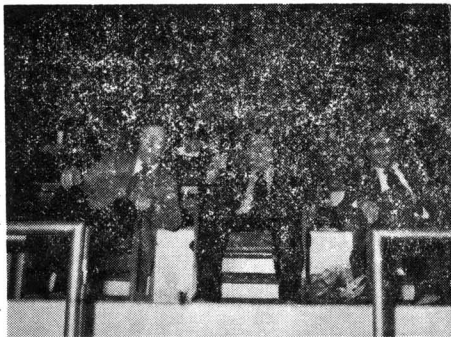
미올림픽위원회부회장인 존·디·켈리씨와 미체육회부회장인 조시아·헨슨부회장은 오후 3시 국기원에 도착하자 남대문국민학교어린이시범단 30명이 펼치는 태권도연무시범을 관람하였는데 마침 19기지도자교육 수강생중에서 경기시범을 보여 김운용회장으로부터 태권도의 경기규정 등 시범경기를 보면서 상세히 설명을 들었다. 이를 본 존·디·켈리부위원장은 중주국태권도의 훌륭한 정신을 이곳에서 찾을수있다고 관전소감을 밝혔다. 또한 어린이시범단이 펼치는 각종 묘기에도 원더풀을 연발하였다.

기자회견에 앞서 김운용총재는 존·디·켈리 부위원장 및 조시아·헨슨미체육회부회장에게 각각 태권도명예단을 수여하였으며 국기원 명예회원증 및 각종 홍보용책자 및 기념품을 증정하자 켈리부위원장은 김운용총재에게 미올림픽배지를 직접 달아주기도 하였다.

이어서 국기원장실에서 이들은 기자회견을 갖었는데, 1시간동안에 걸친 기자들의 질문에서 한국의 방한소감을 『태권도중주국으로만 알고있으며 폐허에서 기적을 이룩한 국가로 알고있었다.』고 켈리부위원장은 첫질문에 답하였다.

또한 금년 9월15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거행되는 제 3회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관한 질문에서는 세계태권도연맹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여 미국에서 지원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미국내의 태권도 현황에 대해서 헨슨



(시범경기에서 규정설명을 듣고있는 켈리부위원장)

부회장은 태권도가 한국인만의 스포츠로 또는 상업적인 무도사업으로 일부의 그릇된 인식은 잘못 이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세계스포츠로서 착실한 성장을 거듭하여 세계각국이 이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제 3회세계대회결과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태권도의 세계화에 새로운 이정표를 설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권도시범을 본 소감에 대해서는 태권도가 엄격한 규율속에서 생겨나는 엄청난 힘에 감동을 받았으며 경기로서의 태권도도 과학적인 물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현대스포츠로서의 철학을 갖고있다고 말하며 올림픽가입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격을 갖고있으며 다른 투기종목보다 흥미있는 스포츠로 평가될수 있다고 켈리부위원장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신경선제 3회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조직 위원장이 배석하였다.

2일째인 10일에는 조선호텔 20층 월관에서 베풀어진 김운용총재 초청 오찬회에는 기술심의회회장단 및 세계태권도연맹임원들이 참석하였다.

한편 메스콜의 추적을 받은 존·디·켈리미올림픽위원회부위원장은 미체육회회장직을



(제3회세계태권도포스터를 놓고 기념촬영)

역임했으며 조정성수로서 활약함바도 있는 스포츠인이며 그레이스 켈리 모나코왕비의 오빠로도 널리 알려진 미체육계의 거물급이다.

이들 두사람은 배농선수촌동한국 스포츠시설을 돌아보고 11일 오전 한국을 떠났다.

## 미 체육회 JOE HENSON부회장

### AAU 보고서

다음은 지난 3월 세계태권도 연맹의 초청으로 내한하여 제 3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준비상황과 김운용 총재를 비롯한 세계대회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끝내고 귀국한 미국 AAU부회장 Joe HenSon씨의 AAU 이사회에 대한 한국방문 보고서 전문이다. 미국올림픽위원회 부회장인 Jack Kelly씨와 3회 세계대회 조직위원장 신경선씨와 함께 나홀동안 서울에 머물렀던 HenSon씨는 이 보고서에서 태권도를 세계적인 스포츠로 키우려는 한국인의 결의와 공헌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전제하고 태권도가 무술로서의 전통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다운 스포츠」라는 확신을 갖게 해 주었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REPORT OF THE SECOND VICE PRESIDENT TO THE AAU BOARD OF DIRECTORS

President Ferrell has designated me as the AAU national officer to monitor the Third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in Chicago, September 15-17. In carrying out this assignment, I visited Chicago and discussed these championships at great lengths with Mr. K.S. Shin, the sponsor. I was also invited to visit Korea as a guest of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I spent four days in Seoul in March. Enroute, I attended the National AAU Taekwondo Championships in Berkley, California on March 5-6.

Since Taekwondo has been generally misunderstood by most of us on the AAU Board of Governors, I was determined to be as objective as possible and not have my head turned by the VIP treatment and hospitality for which the Koreans are well known. I had several questions that I wanted answered for myself and for others in the AAU. I believe I have accomplished the task I set for myself and hope this report will be useful to others in the AAU as well as to the sport of Taekwondo.

I was joined in Korea by Jack Kelly who was also invited as a representative of the U.S. Olympic Committee. Jack stayed two days and I stayed four. We were well received and entertained by Mr. Taik Soo Kim and Mr. Un Yong Kim and their principle staff members. Mr. Taik Soo Kim is President of the Korean Olympic Committee (KOC) and the Korean Amateur Sports Association (KASA). Mr. Un Yong Kim is Vice President of those organizations and President of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We were treated to impressive Taekwondo demonstrations by about 60 children in the 7-9 year old age group and to actual competition by well ranked athletes. On another day we toured the Korean National Training Site which is fashioned after an Olympic Village but with all the competition sites within the village.

It should be realized that Taekwondo is practiced and followed with a

religious fervor in Korea. It is required training for all school children and a more deadly form is required daily training in the ROK Army. It should be noted that Taekwondo is now also taught in the schools for American dependents in Korea as well as to the 8th Army troops. I believe that I can speak for Jack Kelly as well as for myself in saying that we are greatly impressed with the devotion and the determination with which the Koreans are trying to make Taekwondo a world-wide sport.

I have tried to examine all of the questions that I have heard asked in the United States and to report here what I consider the correct answers.

First, "Is Taekwondo a sport?" The WTF has tried to make all changes necessary in the traditional practices of Taekwondo to make it a true sport in the modern sense. Since returning home, I have examined very carefully the dictionary definitions of sport, athlete, and all other pertinent words and applied what I learned at our national championships and in Korea. I am convinced that Taekwondo is a true sport in every sense of the word. This conviction is not diminished by the fact that Taekwondo has retained a martial arts tradition. This tradition is important to oriental people particularly, but the martial arts features are purely ceremonial and completely separated from the actual competition. If boxing, wrestling and judo are sports, then Taekwondo is a sport.

Second, "Don't the Koreans want to retain control of this sport?" My answer is no, they do not. They desperately want it to be a world-wide sport. They realize it cannot be a world sport if it remains wholly Korean. They intend, of course, to remain supreme and influential, similar to the United States position in basketball. WTF expects the AAU Taekwondo Committee to qualify officials and issue belt rankings in this country.

Third, "Don't Taekwondo clubs have more allegiance to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an their national federation?" Perhaps in some cases they do; but I believe this will be only transitory. The clubs now look to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where their needs and problems are understood. When national federations (AAU) understand these same problems and when the Taekwondo clubs understand the national federation, this allegiance will be put in a proper perspective. In some countries, where there are only a few clubs, the WTF must assist them in order for the sport to grow. Where the sport is more developed, as in the U.S.A., the WTF



insists they function only through the national federation. Allegiance is a two-way street. I am ashamed to report that the AAU had not paid dues to the WTF for any of the four years the AAU has been a member. I am happy to report that this has now been corrected and we are in good standing with the WTF.

Fourth, "Don't individual clubs pay dues directly to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 answer is generally no, perhaps with some exceptions. In some countries where only one or two clubs are in existence, these clubs may be acting as the national federation, in which case they pay dues to the WTF. Or, some clubs may pay dues to some controversi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but not to WTF. President Un Yong Kim realizes that in order for Taekwondo to be a strong world-wide sport, it must have strong national federations. He insists that dues be paid only to national federations.

It is my conclusion that up to now, Taekwondo and the AAU have mutually misunderstood one another. I believe they deserve our support and I believe we will get theirs. Taekwondo is a legitimate sport and can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sports in AAU. The WTF has made every effort to grow world-wide but never at the sacrifices of proper procedures or protocol. This is well substantiated by the fact that they have been accepted as members of the AAU, of G.A.I.F. (October 1975) and more recently by C.I.S.M. (April 1976).

Of more immediate concern to the AAU are the Third World Championships in Chicago, September 15-17. I am very optimistic because their success is so important to the sport of Taekwondo and to the WIF. These will be the first world championships held outside of Korea. The sponsor, Mr. K.S. Shin, is a substantial and responsible businessman and has a realistic budget. The attitude of WTF President Kim is that the AAU should be "up front" with high visibility during these championships. This will be beneficial in showing the credibility of the AAU as the National Federation to the 1500 Taekwondo clubs and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President Kim's intention is to stand behind these championships and behind the AAU with low visibility but with support in all other areas needed to ensure their success. I personally believe now they will be a big success. I also believe they will be the vehicle for the AAU and the sport of Taekwondo to mutually solidify positions with each other and for Taekwondo to take its

# 제 3 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파견 한국 대표선수 선발대회

제 3 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미국 시카고에서 1977년 9월 15일~1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세계 40여개국이 참가 예정으로 개최됨에 따라 종주국의 선수단을 파견하기 위하여 1차 선발전(4월 17일) 2차 선발전(5월 1일)을 개최 1차전 1위 2위 2차전 1위 2위를 가려 3차전을 1977년 5월 30일 개최 리그전으로 하여 1위 2위를 선발하였으며 1위 2위 자를 3주간에 합동훈련하여 평가전을 가진 다음 A팀 B팀으로 구분 A팀을 제 3 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한국 대표선수로 파견 할 것이며 B 팀은 국제 친선 대회에 파견하기로 결정되었다.

제 3 차 선발대회 입상자는 아래와 같다.

입상자명단

구분 급 별	1 위 자				2 위 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핀 급	呂	星	基	청 주 능 고	金	塚	澈	전 주 행 성 고
푸 라 이 급	河	錫	光	해 군	崔	潤	基	청 국 기 계 공 고
뽀 탐 급	金	鍾	基	서 울 체 고	朴	吾	成	한 국 체 대
페 더 급	朴	正	浩	육 군	金	武	天	해 군
라 이 트 급	崔	載	天	한 국 체 대	金	世	赫	동 아 대
웰 터 급	劉	永	柁	육 군	婁	龍	求	남 실 공 전
미 들 급	金	相	天	동 대 문 상 고	許		松	육 군 보 병 학 교
헤 비 급	安	章	植	명 지 대	金	正	植	신 촌 도 장

place asone of the more impo

I will be happy to provide any additional information or discuss this at greater length with any of the officers or members of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AAU.

  
 Joe Hen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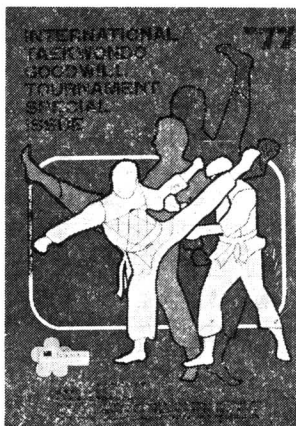
# 국제친선 태권도 선수권대회

## International Taekwondo Goodwill Tournament in Taipei

자유중국태권도협회초청 국제친선태권도선수권대회가 1977년 1월23일부터 24일, 양일간 타이베이 대부시립체전체육관에서 중중국 한국말 비롯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와 주최국인 자유중국등 6개국 이 참가하여 태권도를 통한 국제간의 이해증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중화민국태권도협회가 주최를 하고 중화민국 교육부와 세계태권도연맹이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각국의 선수들이 대부분 7체급이상 참가를 하여 열전을 벌였는데 김복만사범을 단장으로 박재영사범과 장성봉사범이 이끄는 홍콩팀은 8체급전원이 출전을 하였고 제 1회세계대회이후 출품 일본팀을 이끌고 국제대회에서 심판으로 활약하는 강정협사범은 석용태사범을 코치로 라이트급을 제외한 7체급이 참가하였다.

또한 싱가포르팀은 시드니·판(cedric pan)씨를 단장으로 라이트급의 낮익은 얼굴인 로저·탐(Roger Tham)선수를 비롯 8체급이 출전하였다 그리고 인도네시아팀은 아자날·무스타파(Azhal Mustata)단장을 비롯 반담, 페더, 라이트, 웰터급등 4체급이 참가를 하였고 주최국인 자유중국은 쟈친씨를 감독으로 제 2회세계대회에서 감독으로 활약했던 리·휘(Li Huei)를 코치로 제 1회아시아대회에서 활약했던 임서산, 박명유, 임영풍선수와 제 2회세계대회에서 반담급으로 활약했던 황명덕선수를 주축으로 8체급 전체급이 출전하였다. 한국은 홍중수단장을 비롯 이병로 감독, 이규석코치를 임원직으로 민급에 최윤기 선수, 루라이급에 김종기, 반담급에 손태환, 페더에 김무천, 웰터에 유영함, 미들에 김철환,



(대회프로그램)

해비에 김덕수선수등 7체급선수가 참가를 하였는데 라이트급의 최재친선수는 대학학관계로 참가를 못하였는데 이들 선수단은 지난해 10월에 개최되었던 제 2회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참가하였던 한국대표팀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이번 대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이교윤배심과 장원석, 이재욱국제3급심판이 경기진행을 위해 파견되었다.

경기는 첫날인 23일 오후 2시 화려한 개막식을 마치고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민급의 최윤기선수(한국)대 일본의 요시키·시다선수의 대결로 시작하였는데 찬스포착에 민급한 최선수가 일방적인 공략으로 첫 승리를 안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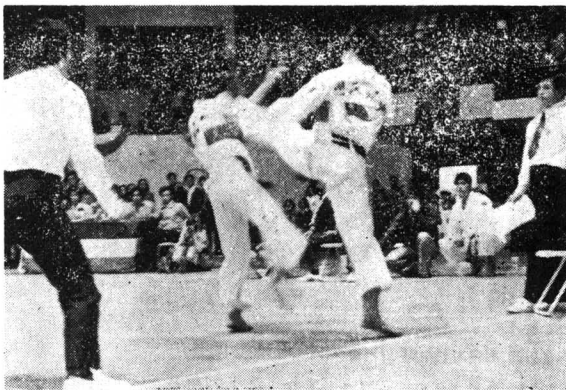
다 주었다.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야간경기로 결승전만을 남겨놓은 경기에서는 주최국인 자유중국이 홈그라운드 의 잇점을 최대한으로 활용 핀급, 푸라이급, 반탐급, 페더급, 라이트급 웰터급, 미들급, 헤비급등 전체급을 결승전에 진출시키는 호조를 보였고 종주국인 한국도 라이트급을 제외한 7체급이 결승전에 진출하였다.

한편 싱가포르선수단은 의외로 선전 핀급, 푸라이급, 반탐급, 웰터급, 미들급, 헤비급에서 동메달을 차지하여 3위를 확정 지었고 라이트급에서 자유중국과 금메달을 놓고 격돌을 벌이게 되었다.

또한 일본은 5개의 동메달을 확보 4위에 머물렀으며 홍콩은 3개의 동메달을 확보 5위를 차지하였고 인도네시아팀은 라이트급에서 하리·사누시(Harry Sanusi)선수가 외로이 동메달을 차지 영예를 모면하고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2일째인 24일 오후 7시부터 거행된 결승전에



(항상된 기량을 보여주는 자유중국의 라이트급선수)

서 핀급의 최윤기선수(한국)는 인도네시아의 리푸잉(Limooing)선수를 원발 뒤돌려차기로 득점을 올리고 싱가포르의 치아·펑·펑(Chia Pheng Pheng)선수를 우세한 실력차로 누르고 올라온 시우·지안·시(Sheu Jiann shi)자유중국선수를 맞아 팽팽한 열전을 벌였으나 최선수는 공격거리를 주지않고 착실히 득점과 연결하여 무난히 첫 금메달의 영광을 차지했다.

푸라이급에서도 한국의 김종기선수는 제 1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임서산선수를 맞아 시종 열띤 공방전끝에 다소 우세한 득점차로 승리를 굳혀 금메달을 차지하였다.

반탐급에서는 한국의 손태환선수가 자유중국의 장무정선수를 맞아 신장의 열세로 고전하였으나 오랜 선수생활로 경기운영에 능숙하여 개빠른 득점후 접근전으로 실점을 허용하지 않아 3번째의 금메달을 차지 종합우승의 문턱에 한걸음 더 나아갔다.

페더급에서는 한국의 김무천선수도 제 1회아시아대회에서 자유중국



(한국대표선수단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핀급 최윤기선수의 묘기를 지켜보는 사진기자들)

대표로 출전하였던 광명유선수를 맞아 재빠른 후드·익으로 상대선수의 공격찬스를 주지않고 시간이 터지는 돌려차기로 득점을 쌓고 실점을 허용치 않아 4번째 금메달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한국선수가 빠진 라이트급에서는 자유중국의 황명덕선수가 제 2 회세계대회의 자유중국대표선수로서의 관록을 과시하며 싱가포르의 로저·탐(Roger Tham)선수를 맞아 팽팽한 대결을 벌였는데 로저·탐선수도 제 1 회아시아대회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만만치 않은 선수로 모치럼의 열던 공방전으로 이날의 경기장을 온통 흥분의 도가니로 만들었는데 판정에서 황명덕선수의 팔이 올라가자 첫금메달을 차지한 자유중국입원진과 관중들은 기쁨의 환성을 울렸다.

웰터급에서는 자유중국의 양병휘선수가 한국의 유영합선수를 맞아 오른발뒤돌려차기로 착실히 득점을 올려 승리를 굳혔는데 공격해 들어오는 선수를 뒤돌려차기로 득점을 올리는 것이 장기인 유영합선수가 오히려 양선수에게 휘말려 3라운드 마지막까지 실점을 만회하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끝내 득점과 연결치 못하고 분패하여 자유중국은 금메달 1개를 추가하여 한국팀을 바짝 뒤쫓았다.

그런데 미들급경기에서는 제 1 회아시아대회와 제 2 회세계대회에서 헤비급으로 활약했던 임영풍선수가 미들급으로 한체급을 내려 출전하였고 73년제 1 회세계대회이후 75년제 2 회세계대회만을 제외하고 줄곧 한국대표선수 미들급을 고수하였던 김철환선수와 대결에서는 1라운드에서는 탐색전을 펴는 듯 가벼운 퀴인트·모손으로 서로 대치하였다. 그러나 커다란 공격동작과 뒤돌려점푸차기가 특기인 김선수는 2라운드

중반에서 자기의 장기를 최대한 발휘 임선수를 켈퍼스에 누여 화려한 KO승을 견우고 5체급 금메달을 확보한 나머지 경기와 관계없이 종합우승을 확정지었다.

마지막으로 거행된 헤비급경기에서는 김덕수(한국)선수가 임보라(자유중국)선수를 맞아 선전을 하였으나 체력적으로 임선수를 당해내지 못해 분패하고 말았다.

이로서 자유중국은 금메달 3개와 은메달 5개를 차지 종합 2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날 결승전에서 한국팀이 한체급만이라도 금메달을 놓쳤을



(돌려차기로 득점을 올리는 웰터급 유영합선수)



(라이트급에서 발군의 투지를 보인 자유중국 황명덕선수)

모두 중량급이라는 점이다. 앞으로 제 3회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한국대표선수 선발과정은 물론 훈련과정에 있어 특별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것이다. 또한 친선경기라는 점에 선수들의 정신적자세에서도 보다 확고한 신념을 갖고 대회에 임할수 있는 태도도 비단 기술의 우위뿐만 아니라 선수완사람 한사람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긍지를 갖고 다른 나라선수들에게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경우 종합우승의 자리를 놓칠뻔 하였다. 이로써 2일간에 걸친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금메달 3, 은메달 2을 차지하여 종합우승을 차지하였으나 앞으로 국제대회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남겼다. 이번 대회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금메달 2개를 놓친 것이 웰터급과 헤비급으로

그러나 대회결과는 자유중국에 태권도를 뿌리내린지 10년이 경과한 지금 모든 자유중국 국민들에게 성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된 셈이며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확고한 계기를 마련한 대회였다고 볼 수 있겠다.

● 토막소식 ●\*\*\*\*\*● 토막소식 ●

## 은광여고 이강목교장에 감사패

77년 4월 1일 은광여자고등학교 이강목교장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를 받은 이교장은 여성체육향상은 물론 올바른 국가관과 여성태권도지도자 육성에 관심을 갖고 여고태권도부를 창설한 것을 치하하여 감사패를 받았다.

## 청주대학 송상헌선수 태권도 장학생선발

충청북도 청주대학(김준철이사장)에서는 77년도 체육과 신입생모집에서 태권도특기생 12명을 선발하였는데 신입생중 송상헌(동대문상고 졸업)선수는 대학 졸업시 4년동안 전면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송상헌선수는 고교재학당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렸는데 편급에서 제5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였고 76년국가대표선수선발전에서 2위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 1977년도 전국신인태권도 선수 선발대회

## National New Face Taekwondo Championships '77

1977년도 전국태권도 신인선수권대회가 대한태권도협회 주최로 77년 3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의 예선과 3월30일부터 31일 양일간 본선으로 총 5일동안 국기원에서 개최되었다.

중기부와 고기부로 나뉜 이번 경기에서는 중기부 편급의 지용법선수를 비롯하여 770명이 고기부에서는 김종관선수의 170명이 참가 총942명이 참가하여 선수참가에서 새로운 기록을 수립하였다. 당초 대회일정을 3일간으로 잡은 경기관계임원들은 예상보다 무려 400여명 이상이 출전을 하여 대표자회의에서 부터 각별한 신경을 쓰며 대회에 임하였다.

첫날인 25일에는 갑자기 기온이 영하의 온도로 떨어져 계체에서부터 선수들을 초조하게 하였는데 첫 대회출전이라는 긴장과 자기체급을 학생부와 일반부를 구분 못해 무려 88명의 선수가 계체에서 실격을 당하였다.

경기는 2분2회전으로 준결승까지를 치르고 결승전에는 2분 3회전 경기로 속행되었는데 처녀출전의 선수들이 많아 두드러진 실력의 차를 보이며 간간히 터지는 KO승도 엿볼 수 있었으나 무리한 공격으로 많은 선수들이 손에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2일째에는 오전부터 뿌리기 시작한 봄비는 국기원의 대지를 축축히 적셨으나 경기장은 한층 음산한 분위기로 전기불까지 나가 경기를 치무기에는 약간의 지장을 초래하였으나 각급학교의 열띤 응원으로 장내를 다소 훈훈하게 하였다.

3일째인 27일, 일요일에는 청명한 봄날씨로 경기장 분위기는 한껏 밝게 이어졌는데 대부분



항상된 기량을 보여주는 고기부 미늘급 선수들

의 선수들은 한껏 자기의 기량을 발휘하는듯 일방적으로 우세한 경기를 운영하는 선수들이 많았는데 제 3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의 전초전을 보는듯하여 많은 관중들로부터 갈채를 받은 선수들이 많았는데 특히 중기부 맨탐급 김인수 선수(서울공고)는 예선전에서 일반부 선수들과 격돌하여 발들어내려치기와 돌려차기등 저돌적인 공격으로 4회전까지 진출하였으나 아깝게도 준준결승 진출권을 놓고 오명석(인천동산)선수의 대결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으나 유연한 몸 동작과 재빠른 후드·윙등 앞으로의 매성할 소질을 엿보인 선수로 기대가 촉망되었다.

결승전을 하루 앞둔 30일에는 대체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선수들이 준결승 진출전을 획득하였는데 신인들이면서도 첫 중앙무대에서의 경

기를 비교적 잘 풀어나가는 선수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 인천체육전문학교는 무려 120여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준결승 진출권을 놓고는 자기학교 선수들과 격돌을 벌이기도 하였으며 전남, 전북체육고등학교와 인천체육고등학교등의 선수들이 첫선을 보여 앞으로 각종 연맹대회에서 무서운 다크·호스로 등장할 것이 예상되며 유도대학에서 태권도부를 창설 처녀출전을 하여 조심스럽게 타진을 하여 보는듯 하였다

3일만에 걸친 예선전에서는 자체권의 준준결승진출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썼는데 대부분의 선수들은 많은 응원단의 뒷받침을 받은 학교선수들이 호조를 보이고 다음 회전의 진출권을 획득하고 경기를 마쳤다.

경기 4일째인 30일에는 3일간의 휴식으로 선수들은 피로의 기색없이 밝은 표정이었으며 경기내용도 공백기간이 있어서인지 첫날 분위기와 같은 차분한 마음으로 대전에 임했다.

이날 경기에서는 실력의 차가 좁아지면서 많은 선수들이 체체에서 승패를 판가름했으나 중기페더급의 김영승선수는곽옥섭선수를 맞아 첫라운드 시작부터 시종 일방적인 공세를 벌이면서 곽선수를 코너로 몰더니, 라운드 종료 몇초를 남기고 돌려차기로 곽선수 안면을 강타 통쾌한 KO승을 걷우고 준결승에 진출하였고 중기판타급 연규연(청주기계공고) 선수도 박봉용 선수(일번)를 맞아 동메달의 진출권을 놓고 격돌을 벌였는데 라운드 중반에 연선수는 뒤돌려차기를 박봉용선수의 복부에 저중시켜 그자리에 주저앉히고 말아 역시 KO승을 걷어냈다.

마지막날인 31일에는 많은 선수들이 금메달을 놓고 체체로 순위를 결정하였는데 인천체전의 경우 5명의 선수가 체체에서도 비겨 추첨패를 당하는 희비극의 연속을 속출했다.

예년과 별다름이 없이 입상들은 대부분이 고등학교 선수들이 차지하였는데 중기부 경량급에서는 단연 고교급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냈으며, 가장 많이 출전한 인천체전의 경우 12명의 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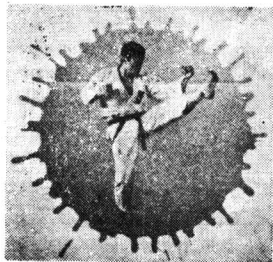
점두돌려차기를 오른손으로 막고 왼주먹지르기를 시도하는 김인수선수

가 메달을 획득하였다.

이로서 77년도 태권도선수의 새얼굴을 탄생시킨 이번 대회에서는 전년에 비해 향상된 실력을 보인것 외에 무엇보다도 경기인구의 증가를 가장 큰 성과로 꼽을수 있으며 상위입상을 위협하는 지방선수들의 진출도 괄목한 성장을 한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선수층의 증가는 페더급 이하 경량급에 몰리고 있어 모처럼 기대하였던 중량급의 신인부재라는 아쉬움을 속제로 남겼다.

체급별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체 급 별 입 상 자 명 단

체	급	종	기	부	고	기	부		
핀	급	1위	조	병	준 (동대문상고)	장	광명 (성동상전)		
		2"	채	연	석 (천호상전)	박	형철 (인천체전)		
		3"	이	석	현 (인천체고)	임	광열 (성동상전)		
		3"	전	양	주 (남산공전)	이	정식 (인천체전)		
푸	라	이	급	1위	강	명	선 (남산공전)	박	효남 (유도대학)
				2"	김	점	호 (만경고)	이	규인 (인천체전)
				3"	김	태	기 (남산공전)	한	신재 (인천체전)
				3"	김	학	영 (호남고)	홍	종배 (성동상전)
뎨	탐	급	1위	윤	진	선 (대성고)	최	인기 (인천체전)	
			2"	최	덕	진 (인천체고)	송	석중 (청주기계공고)	
			3"	김	명	언 (인천체고)	조	광원 (원광대학)	
			3"	오	명	석 (동산고)	조	영훈 (신촌도장)	
복	터	급	1위	박	용	창 (광성고)	송	승복 (인천체전)	
			2"	박	찬	철 (인천체전)	박	기주 (인천체전)	
			3"	이	규	남 (동대문상고)	김	현덕 (인천체전)	
			4"	유	춘	호 (한성고)	이	재근 (성일고)	
라	이	트	급	1위	김	성	일 (인천체고)	김	금선 (인천체전)
				2"	김	창	호 (신촌도장)	고	석우 (명지대)
				3"	전	익	기 (대성고)	김	철희 (인천체전)
				3"	이	병	두 (천호상전)	김	삼수 (신촌도장)
뎨	터	급	1위	김	영	승 (일반)	우	세기 (신촌도장)	
			2"	이	동	영 (신촌도장)	박	홍유 (인천체전)	
			3"	김	영	동 (일반)	손	천택 (인천체전)	
			3"	노	병	권 (춘천농고)	오	강목 (신촌체육관)	
미	들	급	1위	하	용	섭 (성동상전)	장	세백 (대양도장)	
			2"	박	영	철 (전남체고)	양	영곤 (인천체전)	
			3"	윤	정	윤 (화랑도장)	김	윤자 (일반)	
			3"	김	용	곤 (김제고)	김	종관 (9공수)	
해	비	급	1위	홍	재	살 (신촌도장)	서	충원 (대양도장)	
			2"	강	홍	목 (인천체고)	정	철만 (청도체육관)	
			3"	오	천	현 (5공수)	김	상기 (K A L)	
			3"	신	용	섭 (국방부)	박	경모 (동대문도장)	

1. 跆拳道人은 自助, 自立, 協同의 旗手다!

## 제12회 대통령 하사기쟁탈 단체대항 태권도 대회를 마치고



경기분과위원장 박 병 오

제12회 대통령 하사기 쟁탈 단체대항 태권도 대회가 51개팀 338명이 참가한 가운데 5월 14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국기원에서 열렸다. 체급별 개인전 토너먼트식 경기방법으로 각 체급별 개인이 획득한 메달수에 의해서 단체등위를 결정하는 금년 대회는 일반부에서는 명지대학팀을 비롯한 23개팀과 고등부에서는 서울체육고를 비롯한 28개 팀이 참가하여 예년에 볼 수 없었던 대성황을 이루었다.

19일 10시! 주악에 맞추어 진행된 씩씩한 모습의 선수입장에 이어 전년도 우승팀인 육군과 성동상건의 우승기 반환이 있었다. 이어서 김종규 서울신문 사장의 개회사에 이어 명예대회장인 김 운용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대통령기 쟁탈전의 취지와 중요성 그리고 스포츠로서의 태권도 발전」에 대해 말 하였다. 이어 선수의 대표선수 선서를 끝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조 인곤 선수와 김 도식 선수의 경기를 선두로 열전 3일의 막이 올랐다.

본 대회의 총괄적인 입상성적 종합 순위는 단체우승

1위에는 해군팀이

2위에는 육군 B팀

고등부 단체우승

1위에는 성동상건

2위에는 청구기계공고

일반부 장려상에는

한영공업주식회사와 명지대학

고등부 장려상에는

중동 전기공업고등학교팀

과 천호상업전수학교팀이 각각 수상되었다. 3일간 계속된 제12회 대통령 하사기쟁탈 태권도 단체대항전을 통털어 결산해 본다.

① 일반부 팀이 전년도에 비해 1개팀이 증설되어 출전하였고

② 고등부 출전팀인 성동상건 팀에서 3년 패권의 결의를 위해 매일 일천명이 넘는 재학생들을 응원단으로 동원하여 이색적인 응원을 펼친 열성이 높게 평가 되었으며

③ 전년도 일반부 우승팀인 육군대표팀을 물리치고 선전분투한 해군팀이 6년만에 패권을 되찾은 역사를 기록한 일이며

④ 일반직장에서 실업팀으로 처녀 출전한 한영공업 주식회사 팀이 승패에 관계없이 아마추어 정신을 발휘하여 장려상을 받은 것은 특기할 만 하였다.

또한 금년 대회는 태권도가 1976년 CISM(국제군인 체육대회)과 GAIF(국제아마추어 경기연맹)에 가맹된 이후이고 1977년 9월 제 3회 세계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국제 스포츠로서의 비중은 대단히 큰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태권도 인구 저변확대와 선수의 증가를 위한 경기라고 볼 수 있었던 차원에서 올해부터는 국제 스포츠로서 태권도의 본질을 높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태권도 발전의 비약적인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대회의 의의는 더욱 더 깊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일부 승부욕에 치우친 응원단의 과열된 자세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은 자못 서운한 일이었다. 어느 팀이나 자기 팀을 아끼고

또한 자기 팀이 우승했으면 하는 마음은 똑같은 것이다. 자기 팀을 위한 과열된 응원 지나친 승부욕은 팀 하나만을 위해서는 좋은 것인지 모르나 거국적 입장에서는 결국 우리 태권도 장래를 가로 막을 수 있는 암적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 태권도 지도자들은 조그만 욕심을 버리고 태권도로써 세계를 정복하고 온 세계 각국 국민에게 태권도 정신을 주입시켜 태권도의 깃발 아래 전세계가 하나로 뭉치도록 원대한 꿈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수 여러분에게 다음 몇 가지를 당부한다.

1. 경기에 임해서 우승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Sportsmanship에 입각하여 자기의 최선을 다할 것이며

2. 태권도 경기에 있어 특점이 쉬운 잔기술만 익히지 말고 고도의 기술 개발에 노력을 기울일 것

3. 태권도가 경기 이전에 무도에서 시작된 만큼 예의를 존중하고 지도자의 명령에 따르는 무도 정신을 간직해 줄 것을 부탁하며

4. 최근 선수들이 기술숙달 과정에서 품세를 거의 실시 하지 않고 있는데 품세를 통한 창의적인 기술개발과 품세의 응용 동작을 거구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 다같이 대동 단결하여 조국의 명예와 국민총화의 기수가 될 것을 굳게 굳게 다짐하면서 본 대회가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임원 및 선수 여러분께 감사드리다.

## 체 급 별 우 승 자 명 단

(일반부)

체 급	성 명	소 속	체 급	성 명	소 속	체 급	성 명	소 속
핀 급	이 종 울	해군 B	판 탐 급	이 낙 휘	단국대	웰 터 급	이 재 근	서사도장
"	전 범 수	대양도장 A	페 더 급	박 정 호	육군 A	"	이 경 식	해군 B
"	한 유 근	육군 B	"	김 무 권	해군 B	미 들 급	허 충	육군 A
"	정 찬 호	신촌도장	"	임 대 택	전남지부	"	차 석 현	명지대
푸타이급	하 석 광	해군 A	"	박 종 결	대전호남도장	"	권 오 복	육군 B
"	박 운 서	인천체전 B	라이드급	이 종 철	당지대	"	이 종 권	인천체전 B
"	최 주 성	전남지부	"	조 병 철	육군 B	해 비 급	홍 재 삼	육군 B
"	장 원 모	명지대	"	김 금 선	인천체전 B	"	김 정 식	육군 B
판 탐 급	손 태 환	해군 B	"	주 상 천	해군 B	"	김 무 영	단국대
"	이 철 주	해군 A	웰 터 급	김 성 일	육군 B	"	오 유 열	해군 A
"	이 양 원	단국대	"	한 광 열	성균관대학			

(고등부)

체 급	성 명	소 속	체 급	성 명	소 속	체 급	성 명	소 속
핀 급	윤 준 철	성동상전 A	판 탐 급	이 해 원	성동상전 B	웰 터 급	임 종 남	성동상전 B
"	장 창 영	성동상전 B	페 더 급	이 태 회	충동전기공고	"	전 금 수	군산제일고
"	김 원 식	청주농고	"	김 정 국	성동상전 A	미 들 급	하 용 성	성동상전 A
"	한 진 술	한성고 A	"	권 오 민	성동상전 B	"	박 형 태	장흥고
푸타이급	지 용 범	청주기계공고	라이드급	민 원 기	청주기계공고	해 비 급	마 성 현	청주농고
"	김 한 노	성동상전 A	"	이 병 두	천호상전	"	양 천 석	성동상전 A
판 탐 급	조 남 수	성동상전 A	웰 터 급	박 재 욱	성동상전 A			

# 동명국민학교 첫 패권

## 제3회대한태권도협회장기쟁탈

### 전국국민학교 단체대항태권도대회

제 3 회 대한태권도협회장기쟁탈 전국국민학교 단체태권도대회가 1977년 5월 14일 국기원에서 개최되었다.

한국국민학교태권도연맹이 주최하고 대한태권도협회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부산 배정국민학교를 비롯 전국 49개교에서 304명의 선수가 참가 회장기의 향방을 놓고 열전을 벌였다.

참가선수들을 보면 2연패로 3연패를 노리는 남대문국민학교가 16명의 선수를 참가시켰고 광희국민학교가 21명의 선수를 참가시켜 가장 많은 출전을 하였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학교는 7~8명의 선수를 출전시켰다.

경기방법은 1분 2회의 예선전과 1분 3회전의 결승전으로 치루어졌으며 채점 방법으로는 참가 점수를 체급별로 1점으로 하고 금메달 7점, 은메달 5점 동메달 3점을 종합하였는데 동일 학교에서 한 체급에 2명 이상이 출전하였을 경우 상위입상의 점수만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오전 7시부터 계체에서는 33명의 선수가 체중이 넘쳐 탈락했으며 9시부터 거행된 개회식에서는 이운영대회장을 대리하여 흥전교부대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태권도인의 사명을 선수들과 함께 낭독하였다.

이어서 거행된 경기에서는 핀급의 최형근(노량진)선수대 이상감(전농)선수의 대전을 시작으로 경기가 속행되었는데, 대부분의 선수들이 메달권에 돌입하기에는 4회 이상 경기를 치워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경기에 입하였는데 새벽부터 뿌리기 시작한 초여름에 비는 모처럼의 첫 국민학교 대회를 스산하게 하였다.

그러나 경기는 월등히 향상된 기량으로 좀처럼



이 운영 대회장

림 우열을 가늠하기가 힘들었는데 대회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근소한 득점차로 다음 회전에 진출하였고 비김선수가 많이 속출된 것이 특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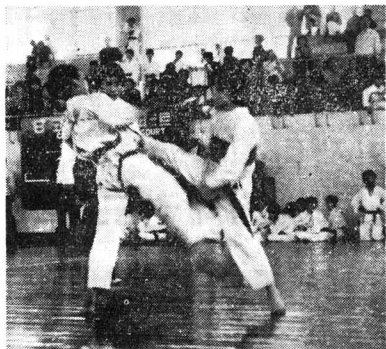
오후 3시까지 속개된 준결승전 진출전을 놓고 각축전을

벌인 각급 학교에서는 메달권 돌입을 놓고 더욱 치열한 눈치각전으로 맞섰는데 3연패를 목전에 둔 남대문 국민학교에서는 12명의 선수가 동메달 진출권을 획득하는 호조를 보였고 광희국민학교도 대거 15명의 선수가 진출하여 역시 만만치 않은 적수로 등장하였다.

또한 부산배정국민학교도 8명의 선수가 출전 6명의 선수가 3회전까지 진출하였고 청주의 수봉국민학교도 5명의 선수가 3회전을 통과하여 지방선수들의 만만치 않은 실력을 과시하여 기염을 토했다.

이어서 동메달로 향한 준준결승에서는 많은 선수들이 계체에서 승패를 가렸는데 팽팽한 실력의 차와 짧은 경기시간은 충분한 실력의 차를 가늠하기가 힘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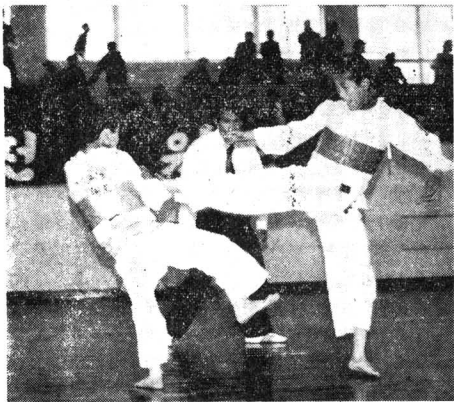
준결승전에 돌입하자 6명의 선수를 진출시킨 광희국민학교가 강력한 우승후보로 등장하였고 남대문국민학교도 4명의 선수를 진출시켜 만만치 않게 이를 뒤쫓았으며 동명국민학교도 3명의 선수를 진출시켰다.



오른발 돌려차기로 득점을 올리는 선수

결승전에서는 웰터급까지 뚜렷한 판도를 가리지 못하고 가장 많은 입상을 올린 광희국민학교가 우승을 낙관하였는데 페더급에서 김준태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고 미들, 헤비급에서 연달아 2명의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자 종합 점수 26점으로 동명국민학교가 우승을 차지하여 광희국민학교가 26점으로 2위를 차지하였으며 3연패를 노리던 남대문국민학교는 20점으로 3위로 밀려났다.

엇치락 뒤치락 하던 종합전적은 의외로 소수 정예의 동명이 대망의 회장기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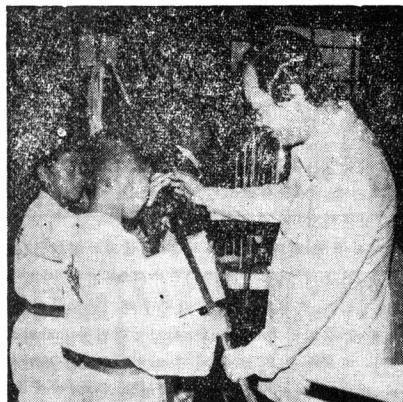
우세한 신장으로 일방적인 공격을 퍼는 김명세 선수

입상자를 보면 라이트급 김영만 선수가 충북 수봉국민학교로 유일하게 지방선수를 입상해 주목을 끌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력의 차도 있겠으나 다소 애매한 판정을 보이기도 하여 관중들의 빈축을 사는 사례도 있었으나 개정된 경기·심판 규정의 시행으로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본다.

## 종합 전 적

- 1위 서울동명국민학교
- 2위 서울광희국민학교
- 3위 서울남대문국민학교
- 4위 서울남정국민학교
- 5위 서울전농국민학교



(단체우승교인 동명선수에게 우승기를 증정하는 강원식전투)



첫 패권을 차지한 동명국교 선수들

### 체급별 입상자 명단

체급	순위	성명	학교명
핀급	1	강철우	서울전농국민학교
	2	임형성	"
	3	홍계선	서울광희국민학교
		장환인	서울중곡국민학교
푸라이급	1	엄일돈	서울남당국민학교
	2	진상철	서울전농국민학교
	3	한상호	서울남대문국민학교
		박재민	서울미동국민학교

체급	순위	성명	학교명
팬탈급	1	심우창	서울미동국민학교
	2	김지태	서울광희국민학교
	3	지인환	서울남정국민학교
		김용복	서울남대문국민학교
페더급	1	김준택	서울동명국민학교
	2	김해수	서울남정국민학교
	3	정성욱	서울민복국민학교
		함윤석	서울광희국민학교
라이트급	1	임용택	서울남대문국민학교
	2	송종석	서울남대문국민학교
	3	최필수	서울후암국민학교
		김영만	충북음성수봉국민학교
웰터급	1	강일성	서울광희국민학교
	2	이태우	서울당산국민학교
	3	조형우	서울은천국민학교
		정진용	서울신도국민학교
미들급	1	최이현	서울동명국민학교
	2	김종훈	서울남정국민학교
	3	김명수	서울당산국민학교
		강효준	서울중앙국민학교
헤비급	1	신상돈	서울동명국민학교
	2	김희찬	서울탑동국민학교
	3	서석훈	서울광희국민학교
		이재호	서울남대문국민학교

●토막소식●

### 학교법인 대성학원 김준철 이사장에게 감사패 전달

●토막소식●

1977년 6월 8일 대성학원이 창립된지 53주년을 맞이하였으며 청주대학 개교 30주년을 맞이한 성대한 기념행사에서 충청북도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 시대헌·공헌을 하였음은 물론 청주대학교 태권도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배려하여준 김준철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 주한 미2사단 태권도 선수권대회

# The 2nd Infantry Division Individual Taekwondo Tournament



태권도는 한·미간의 이해증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주한미 2사단 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가 77년 2월 5일 미2사단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경기도북부주한외국인 지부단에서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1월5일부터 매주 금, 토요일에 예선전을 치루고 이날 결승전을 맞았는데 각급 부대에 300여명 이상이 출전을 하여 대한태권도협회 경기규정으로 유급자 4체급을 5등급으로 유단자는 5등급으로 나누어 거행되었다.

이날 결승전에 앞서 김운용회장 및 모리스·J 브라디 2사단장이 참관한 가운데 남대문 국민학

교 어린이태권도시범단의 태권도 연무시범은 많은 사병들로부터 갈채를 받았다.

이어서 김운용 회장은 브라디 사단장에게 태권도 명예 3단증을 수여했으며 브라디 사단장은 김운용회장에 76년 8.18판문점 미류나무 절단작전에서 찍은 칼라사진첩을 기념품으로 김운용회장에게 전달했다.

또한 김회장은 미2사단 태권도 보급발전에 공이 큰 우수부대장 및 스포츠책임자들에게도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어서 속행된 경기에서는 유급자들은 다소 서투른 경기 운영으로 대전에 임하였으나 만만치 않은 무지로 많은 관중들을 열광시켰고 유급자 경기에서는 유급자들보다는 세련된 경기운영으로 상대선수를 일방적으로 몰아부치는 선수들이 간혹 보였으며 기술면에서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선수들도 많았다.

연간 4차례에 걸쳐 태권도 개인선수권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미 2사단에서는 장교 및 사병들에게 의무적으로 태권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날 경기를 통해 한미간의 우호증진은 물론 이들이 본국에 돌아가서도 태권도를 통한 한국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

이날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브래디 사단장과 태권도에 대하여 환담하는 김희장

## Medal Standing

WEIGHT CLASS	WINNER		
<b>White</b> (Lt. Wt.)	Besares	<b>Junior Red</b> (Lt. Wt)	Robinson
" (Middle Wt.)	Fox H.	" (Middle)	Mor ales
" (Heavy Wt.)	Brown	" (Heavy)	Parken
" (Fly Wt.)	McCrimmon	" (Fly)	
<b>Yelow</b> (Lt. Wt.)	Lee S.O.	<b>Senior Red</b> (Lt. Wt.)	Caraballo
" (Middle Wt.)	Hampton	" (Middle)	Arnold
" (Heavy)	Martin	" (Heavy)	Demmon
" (Fly)	Kim I.S.	<b>Junior Black</b> (Middle)	Addison
<b>Blue</b> (Lt. Wt.)	Garcia	" (Heayy)	Cortez
" (Middle)	Stephens	<b>Senior Black</b> (Lt. Wt.)	McNair
" (Heavy)	Mendiola	" (Middle)	Stevenson
" (Fly)	Colon	" (Heavy)	Jerry Edelen

◇명언◇ 늙은 장군은 전쟁에서 조급하지 않는다 <이태리메타스타지요>



# 제4회 전국 중·고등학교 태권도 연맹

## 회장기 쟁탈 단체대항 태권도 대회

### The 4th Middle and High School

### Tackwondo Competition



대회장 개회식 광경

1977년 5월 6일부터 5월 7일까지 2일간에 걸쳐 벌어진 제 4회 춘계 중·고 연맹 회장기 쟁탈 단체 대항전은 분투하는 선수와 내외의 성원 속에 조용히 막을 내렸다. 전국 중·고 연맹이 주최하고 대한태권도협회가 후원하는 본 대회는 성의있고 조직적인 대회 운영과 지도 코치들의 격조 높은 인격 정립속에 태권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약하는 차원높은 대회라고 말하고 싶다.

특히 강석규 대회장님께서서는 태권도를 통한 신

체 단련은 물론이려니와 정신 교육을 통하여 원만한 사회인으로서의 인격 형성에 중점을 둘 것을 당부하신바 있다.

중등부에 25개팀과 고등부에 27개팀이 참가한 이 대회는 중등부에 한영중학과 지방에 예산중학교의 치열한 접전끝에 한영중학교에 우승기가 돌아갔으며 고등부에서는 전연도 우승팀인 서울체육고등학교가 저력의 인천체육고등학교를 물리치고 3년패를 차지하였다. 특히 괄목할만한 사항은 지방에 예산중학교팀이 중앙에 많은 팀들을 물리치고 준우승을 차지하였다는 것은 지방과 서울의 실력 격차가 평준화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여러 불비한 여건



김종기 선수의 선사광경

속에서 선전 분투하였음은 우승의 영광 못지 않은 큰 소욕이라고 극찬하고 싶다. 그러나 본 대회를 마치면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면 지나친 승부욕에 도취된 일부 고치들에 관정에 대한 습관적인 불복 태도와 경기장 무단 출입등은 태권도 발전을 저해하는 암적 존재라고 생각되며 또한 담당 코치들의 자숙과 함께 심판원들의 성실한 경기 운영과 공정한 관정이 병행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중등부 우승팀 한영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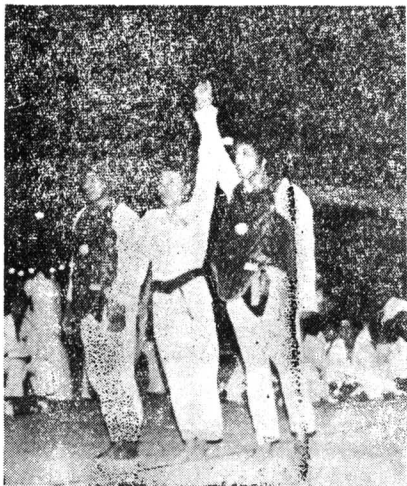
고등부 우승팀 체육고등학교



1977년 5월 19일~22일 KING ABDULAZIZ대학교(이홍석 사범)의 주최로 제 1회 SAUDIARABIA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열었으며 여기에는 개인전 120명 단체전 8개팀이 참가하였으며 현지 10여명의 한국사범들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대회를 마치므로 현지에서는 OKAZ DAILY지동에 대대적인 매스콴을 타게되어 앞으로의 SAUDIARABIA 태권도 전망은 밝아오고 있다고 에집트 주재 노승욱 사범으로부터 전해왔다.



총장으로부터 금매달 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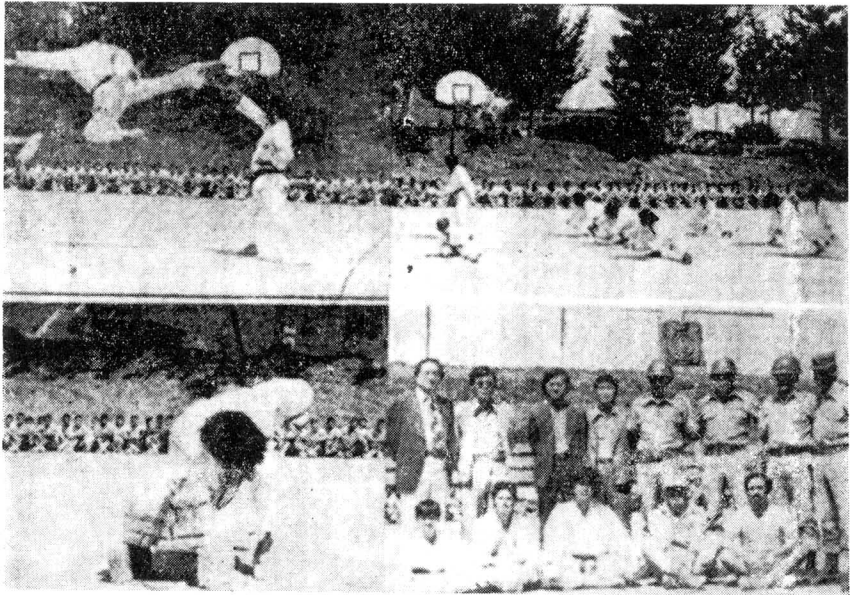
심판 이홍석 사범



귀빈석과 배심원석

<에쿠와들>.....<ECUADOR>

적도의 나라 에쿠와들 총인구 6백만의 조그만한 나라로 수도인 Quito는 해발 2,800m의 고지이다. 이곳 역시 일찍 가래배가 보급되어 있으나 강병욱 사범은 뒤늦게 개척하여 이법재·조대형 두 선배의 도움으로 현지 육군사관학교, 경찰사관학교, 공수부대등 일일히 연무시범을 보이든 끝에 에쿠와들 대통령 경호실에서 태권도를 가르키게 되어 나날히 태권도 부원을 늘리고 있던 차제에 현지 박창남 대사를 비롯한 교포들의 성원으로 태권도 도장을 개설하게 되어 이곳에도 앞으로 태권도의 봄이 곧 일게될 것으로 강병욱 사범이 전해왔다.



강병욱 사범의 연무 시범 대회

## 터키의 77년도 전국남녀태권도 선수권대회 1977th Turkish National Taekwondo Championship

중동의 관문 터키의 활발한 태권도 소식은 이제 보급단계를 지나 결실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동안 수도 앙카라실내체육관에서 거행된 77년도터키전국남녀 선수권대회가 전국에서 308명의 남녀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고 전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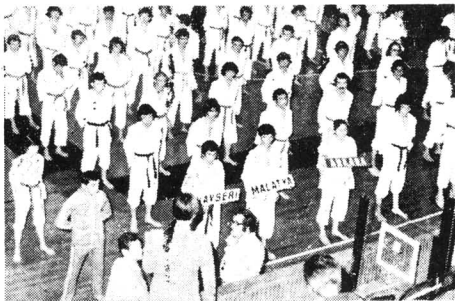
4일간에 걸친 경기는 야간에 까지도 계속되었는데 특기할만한 것은 신문, 라디오, T.V 등 매스콤에서는 한국의 태권도라는 제하의 특집방송을 하는 등 태권도를 통한 한국의 이미지를 더욱 새롭게 하였다.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문철순 주터키한국대사를 비롯 건공관원이 참석하여 대회를 빛냈으며 백상기영사는 여자우승자들에게 메달을 수여하는 등 터키에 꽃피운 태권도를 더욱 빛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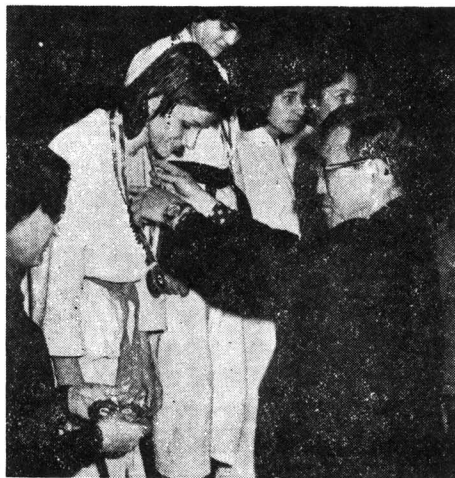
그런데 지난 해 제 1회 중동태권도선수권대회 결과 터키에서 개최기로 된 2회 대회는 6월24일부터 26일까지(3일동안) 앙카라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또한 제 3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파견할 터키대표선수들의 강화훈련도 실시하고 있다고 전해 왔다.

이러한 활발한 중동지역의 태권도붐은 아프리카와 유럽의 관문인 터키에서 보다 활발히 보급되고 있으며 수련에 그치지않는 빈번한 경기 개최는 대륙연맹결성이 눈앞에 있어 세계태권도연맹을 모체로 하는 또하나의 지역연맹이 서서히 잉태되고 있는데 현지사범은 물론 인접 국가의 우리사범들은 보다 긴밀한 유대로 이를 타개할것을 당부한다.



입장식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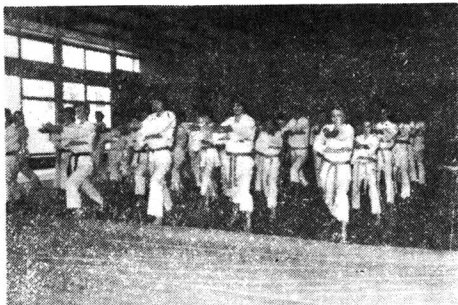


여자우승자에게 메달을 수여하는 주터키 백상기영사

## 폴란드에 꽃피기 시작하는 태권도

발틱해를 접하고 소련과 체코를 국경으로 하는 폴란드는 공산권국가로는 유고슬라비아에 이어 두번째로 태권도가 보급되고 있다고 하는데 수도인 와르소우(WARSAW)에서 남으로 약 200km 떨어진 루부린(LUBLIN)주 LUBLIN에서 Konarski Jerzy씨에 의하여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소식 오스트리아 이경명사범으로 부터 전해 왔는데 5월경에는 이경명사범을 초청하여 기술지도를 받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이사범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헝가리(HUNGARY)에도 태권도가 보급되고 있다고 전하는데 태권도는 이제 국가와의 이념을 초월해서 세계의 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동작에 열중하는 수련생들

보급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과 사범들의 전투에 기대를 걸어 본다.

## 뒤늦은 태권도붐 맞이한 필리핀 Taekwondo Boom in the Philippines



〈필리핀 해군장교 태권도 교관단〉

지리적으로는 중주국과 그리 멀지 않은 필리핀

은 일찌기 태권도가 보급되어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였는데 76년 9월 필리핀 태권도협회로 부터 초청을 받은 홍성천 사범은 박용만 사범이 담아 놓은 터전에 손을 잡고 제 2 회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3위 입상을 계기로 필리핀 태권도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어 태권도 전성기를 맞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새로운 필리핀협회는 국방장관으로 군태권도 보급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 육군사관학교, 해군 등지에는 강교로서 교관단을 편성 지도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활발한 보급과 함께 제 3 회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대표선수 선발 등 분주한 77년을 보내고 있다고 전해 왔다.

### 오지리태권도협회 새 집행부구성

오스트리아태권도협회는 지난 2월27일 홀리데인호텔에서 전국대의원 93명이 참가한 가운데 새 집행부를 구성했다. 임원의 임기는 3년인데 새 집행부에 선출된 임원은 티롤주 부지사인 Dr FRITZ PRIOR씨가 명예회장으로 선임되었으며 KARL PISCHL 국회의원이 회장으로 오스트리아 태권도협회를 이끌게 되었다.

한편 기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경명 사범은 부회장까지 겸임으로 진출하여 앞으로 유럽태권도 연맹이나 세계태권도연맹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대표로 맡게 되었다. 또한 강력한 새 집행부 구성으로 재정지원에 커다란 기대를 약속받고 있다고 이경명사범이 전해 왔다.

새로이 구성된 집행부 명단은 다음과 같다.

명예회장 : Dr FRITZ PRIOR(Tirol주부지사)

회장 : KARL PISCHL (국회의원)

부회장 : 1) HELMUT MADER  
(Tirol주 의원)

2) Dr. Friedrich Greiderer  
(인스브룩 경찰국장)

3) Kyong-myong LEE

사무총장 : Sieberer Hans  
(Tirol태권도협회 회장)

사무차장 : Seeber Warner

재무 : Kaserer Franz

고문 : Dr. Gerhard Kiechl

기술위원장 : Lee Kyong-Myong

감사 : 1) Manfred Kargl

2) Sappl Heinz

### 활발해지는 일본에 태권도

국기 태권도는 세계의 스포츠로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 우리 국어의 구령으로 힘찬 파도처럼 뿔어가고 있다. 지리적적으로 우리와는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멀고도 가까운 나라 일본에도 국내의 수 많은 유사무도의 틈바구니에서 큰빛을 보지 못했으나 우리 사범들의 끈질긴 집념과 열의로 이제 국기태권도는 일본 땅에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여기 백두 고등학교에도 태권도부가 발족되어 국기태권도의 발전을 보게 되었는데 학교유지들이 태권도의 단체활동의 일환으로 학교당국에 요청한바 지원회의 협의결과 정식으로 채택 되었으니 이는 가라매의 중주국인 일본내에 우리의 태권도가 날로 전파되고 있는 것은 특히 활만하다하겠다. 국기 태권도는 청소년들의 민족정신과

채력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학교 당국에도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민간외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태권도는 국제경기 연맹의 승인 아래 무도이면서도 세계스포츠로서 국위 선양을 하게 되었다. 금년 9월 15일 제 3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되는데 무려 50여개국에 참가 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내년 2월에 있을 비올림픽 종목에 가라매를 물리치고 당당히 태권도가 그 위세를 펼칠 좋은 기회를 가질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거의 비슷한 현상이지만 처음에는 중국의 룡후나 일본의 가라매가 거의 휩쓸고 있었으나 힘과 기지를 겸비한 우리의 태권도가 이제 그주류를 이루게끔 되어가고 있으니 이는 세계 태권도화를 위한 좋은 징후라 아니할 수 없다.



## 지중해의 태권도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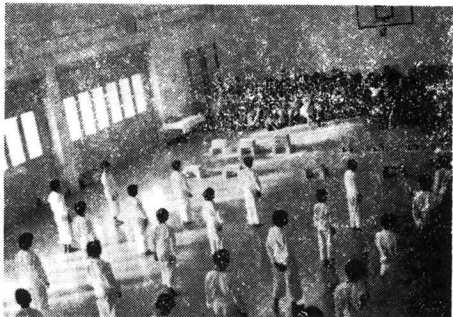
옛날 그리스인들의 발자취를 찾아 볼 수 있는 성지가 많은 나라로서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인구 200만의 왕국 요르단.

후세인(HOSSEIN) 왕을 중심으로 진실한 모슬렘교도들이 대부분이며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구성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아랍 전통의 배드인족의 후예들이며 오랜 식민지 생활에서 자라난 영국계 후예들이 많은 것도 특징이다. 지금은 이웃 산유국들의 도움으로 경제개발에 한층 열을 올리고 있다.

1975년 7월 수도 암만(Amman)의 뜨거운 태양도 해발 1000m에 위치한 공항은 마치 한국의 가을을 연상케 한다. 70년도부터 중동지역에 진출하기 시작한 한국건설업체 중에서 요르단의 농수로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초석건설의 직원으로 파견된 필자는 이스라엘과 요르단 국경을 이르고 있는 요단 강변이다. 이곳은 해저 300m로 이 나라에서는 가장 더운 지방이다. 3월부터 11월까지의 구름 한 점 없고 비 한 방울 없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며 한여름에는 낮 최고 기온이 40°C~50°C까지 수은주를 울려 놓는 무서운 열기가 계속되어 말로만 들던 중동의 열기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만 같았다. 이러한 기후로 겨울철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여름철에는 원만한 농작물은 자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직원들의 근무지는 대부분이 카라마에서 농수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많은 고생을 무릎쓰고 한국민의 끈기와 인내를 보여 주는 교훈장과도 같이 무서운 열기도 아랑곳 하지 않고 지금도 열심히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요단강을 끼고 아래로 내려가면 해저 330m에 위치하고 있는 死海(Dead Sea)가 있는데 세계에서 배놓을 수 없는 관광지로



태권도 시범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인기가 있다

죽업의 바다가 있다. 국민학교 때에 교과서에서 배운 생각에 고국의 푸른 잔디가 불현듯 떠오르기도 한다.

나의 하루는 매일 아침 4시 30분에 기상하여 애국가를 마치고 나면 5시부터 한시간 동안 태권도를 직원들에게 지도하는 것이 일과였는데 50여명의 힘찬 태권도의 구령소리는 온 동태를 잠에서 깨어나게 하였고 날이갈수록 한국민의 기백은 현지인들에 존경의 눈으로 비쳐 모든 한국인들은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요르단 어느 곳에 가드라도 우리들만 보면 손짓 발짓으로 태권도 흥내를 내곤하였다.

이렇게 시작하여 아침 지도를 마치고 수도 암만에 있는 국립체육관과 중고등학교, 개인클럽에서 보급하기 시작한 태권도는 500여명의 수련생들이 중동의 열기를 땀으로 이겨내며 수련을 거듭하고 있다.

처음 시작에서의 곤란은 무엇보다도 언어의 장벽으로 영어로 통역을 하며 지도를 하는 어려움과 많은 공휴일로 계획적인 진도가 이루어지



요르단 청년성정관 사람들이 유명한 사범을  
격려하고 있다

지 않았고 개인체육관을 갖질 수 없는 현지조건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초석건설의 박해원 사장님과 암만지사 박상현부사장님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시간제로 이들을 지도하기로 하고 열심히 뛰는 방법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러한 가운데도 시간의 흐름은 이들의 띠를 바꾸어 놓았고 유급자로는 2급까지 끌어올리는 데는 18개월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왕실체육관과 중고등학교에서 커다란 반응을 보이며 계속적으로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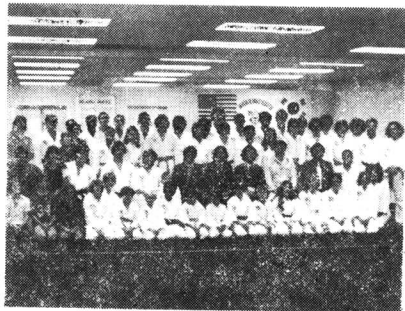
이제 다시 현지에서의 태권도 지도를 머릿속에 정리하며 푸르른 한국의 영공을 통과하는 비행기 폭음소리에 종주국의 따뜻한 배려와 주요르단 한국공판원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벽찬 희망에 나라를 띄운다.

<미 국>

<U.S.A>

## 조지아주 서영실 사범

로마에서는 로마의 式으로 라는 의식구조로 미국 어느 주보다도 보수적인 카터 미대통령의 고향에서 그리 멀지 않는 알바니(ALBANY)에 고집불통의 사나이가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다. 74년 4월 이곳에 자리를 잡고 보니 이미 5개의 가라베 도장이 자리를 잡고 판을 치고 있었다. 그러나 태권도의 우수성을 주민들에게 역설하며 가라베의 도전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뛰고 있는 서영실 사범(Seo young Sil)은 자그마한 체구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보급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자유분방한 이들의 사회 속에 정신면에 치중을 두어 도장내의 예의는 처음에 이들을 어리둥절할 정도로 만들어 학부형의 항의를 받기도 하였으나 부모와 자식간의 정(情), 스승과 제자간의 정(情)은 일치된다는 설득에 이제는 100여명의 수련생들이 태극마크에 새하얀 도복



서영실사범과 수련생들

으로 수련에 수련을 거듭하고 있다.

태권도 정신이 결여된 기술의 보급은 짧은 시간에 한계점에 도달되어 버리기가 일수다. 그러나 기량발전에만 앞서 정신 면에 치중할 수 있고 이들 사회에 뿌리없이 융화될 수 있는 예지있는 많은 지도자가 있어야 하겠다.

## 대한 태권도 협회 동정

### ☆1977년 1월 22일~29일

국제친선태권도대회(본문 참조)

장 소 : 자유중국 대북시

참가국 : 6개국

홍종수 단장 외 12명

1위 : 한 국(금 5, 은 2)

2위 : 자유중국(금 3, 은 1)

장 소 : 국기원

응십자 : 25명(4단 이상), 494명(3단 이하)

### ☆77년 3월 3일~12일

제19기 지도자교육

장 소 : 국기원

수강인원 : 93명

### ☆77년 2월 2일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임원 임명(본문 참조)

### ☆77년 2월 13일

제59회 전국 승품심사(1차)

장 소 : 국기원

응십자 : 500명

### ☆77년 2월 20일

제59회 전국 승품심사(2차)

장 소 : 국기원

응십자 : 548명

### ☆77년 2월 21일

특일 ZBF-TV제작팀 국기원 방문으로 남대문 국민학교어린이시범단 태권도 연무 시범.

### ☆77년 2월 23일

관통합추진위원회결성

노병지, 이교윤, 이남석, 최남도, 박병오, 이금홍, 이용우, 이종우, 엄운규, 홍종수, 이병로, 김인석, 노희덕(무순)

### ☆77년 2월 26일~27일

제74회 전국승단 심사

### ☆77년 3월 9일

미국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John D. Kelly와 미체육회부회장 Josiah Henson, 국기원을 방문하여 김운용 세계태권도연맹총재와 제3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이어서 거행된 남대문국민학교 어린이시범단의 태권도연무시범을 참관한후 국내스포츠기자들과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제3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장인 신경선 씨도 배석하였다.

10일에는 대한태권도협회 임원들과 함께 조선호텔 월궁에서 오찬을 가졌다.

### ☆77년 3월 13일

제60회 전국 승품심사대회(1차)

장 소 : 국기원

응십자 : 500명

### ☆77년 3월 19일

1977년도 주한외국인 지도자법소양교육

장 소 : 국기원

참가인원 : 77명

### ☆77년 3월 20일

제60회 전국승품심사대회(2차)

장 소 : 국기원  
 응십자 : 333명

☆77년 3월 21일

월드게임스 I 집행위원장 오스카스테이트씨가 국기원을 방문하여 78년에 텍사스에서 개최되는 월드게임 I 에 대하여 김운용총재와 환담을 나누었으며 제 2회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기록영화를 관람하였다. 이에앞서 기술심의회의원들과 조선호텔 월궁에서 오찬을 가졌는데 오스카스테이트씨는 태권도시범단체의 순회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77년 3월 22일

김운용회장 아이보리·코스트 아미잔에서 거행되는 77년 IOC-NOC총회 한국회의 대표로 NWA편으로 출구.

☆77년 3월 25일~31일

1977년도 전국태권도 신인선수권대회(본문 참조).  
 장 소 : 국기원  
 참가인원 : 942명

☆77년 4월 10일

제61회승품심사대회(제 1 차)  
 장 소 : 국기원

경기용 남심보호대 공인

대한태권도협회는 경기용 남심보호대를 공인품으로 선정 4월 15일부터 거행된 제 3회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파견 한국대표선수 1차선발전부터 사용되었다. 공인된 남심보호대는 법무사에서 제작되는 것으로 보호대 상단에 협회마크와 공인이라는 표시를 하였다.

박두규 경북태권도협회 기획이사 국기원에 비료증정

박두규 경북태권도협회부회장은 77년 5월 9일 국기원에 비료 50포를 국기원조립사업에 사용하라고 증정했다.

뉴·올리언즈의 문양근사범 국기원에 식수비 보내

1977년 4월 19일 미국 뉴·올리언즈주 메타이(METAIRIE)에서 활약하는 문양근사범은 국기원에 식수비로 성금 100불을 보내왔다.

72년에 미국으로 태권도보급차 파견된 문사범은 태권도정신에 입각한 훌륭한 지도로 현지인들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응십자 : 500명

☆77년 4월 11일~12일

1977년도 심판위원보수교육  
 장 소 : 국기원  
 참가인원 : 130명

☆77년 4월 12일

경기·심판규정 개정안 공청회  
 장 소 : 국기원  
 참가인원 : 100명

☆77년 4월 15일~17일

제 3회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파견 한국대표선수선발제 1차전(본문 경기상보 참조).  
 장 소 : 국기원  
 참가인원 : 312명

☆77년 4월 18일~21일

제15기심판강습회  
 장 소 : 국기원  
 참가인원 : 100명

☆77년 5월 30일

인도네시아 올림픽사무총장 Sae Woro 부처가 국기원을 방문하여 김운용 원장으로부터 명예회원증을 받고 태권도연무시범을 관람

# —KOREA TAEKWONDO ASSOCIATION JOURNAL—

## ☆Jan 22-29, 1977

International Good will Taekwondo Championship

Place: Taipei

Participating Nation: Six nations

Team Head Chong Soo Hong with 12 Persons

1st Place: Korea (Gold 5, Silver 2)

2nd Place: Republic of China (G3, S1)

## ☆Feb 2, 1977

Members of Council of Techniquer Standing Committees appointed

## ☆Feb 13, 1977

The 59th poom promotion test

Place: Kukkiwon

Participants: 500 persons

## ☆Feb 20, 1977

The 59th poom promotion test

Place: Kukkiwon

Participants: 548 persons

## ☆Feb 21, 1977

Germany ZBF-TV producing team visited Kukkiwon they watched Tae Kwondo demonstration by Nam daemoon primary School.

## ☆Feb 23, 1977

Propulsion Committee Organized for Kwnk unification, Committee Members are;

No Byung Jik, Lee Koa Yoon, Lee Nam Seok, Choi Nam Do, Hong Chong Soo, Kwak Ayung Oh, Lee Kwn Hong, Lee Yong Woo, Lee Chang Woo, Um Woon Kyu, Lee Byung Ro,

Kim In Seok, No Hee Duck.

## ☆Feb 26~27, 1977

The poom promotion test

Place: Kukkiwon

Participants: 25 persons (Over 4th Dan) 494 persons (under 3 Dan)

## ☆Mar 3~12, 1977

The 19th Instructor refresher course

Place: Kuk Ki Won

Participants: 93 persons

## ☆Mar 9, 1977

John D. Kelly, Vice-chairman of U. S. Olympic Committee, and Josiah Henson, Vice-President of U.S. Amateur Sports Association visited Kukkiwon and discussed with Dr Un Yong Kim, President of W.T.F. The 3rd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tournament. In addition they also watched Taekwondo demonstration by Nam dae moon primary school, and had an interview with local sports reporters, Mr. Shin Kyung Sun, tournament director of 3rd World Tae kwondo championship tournament, attended the interview. The two visitors had a luncheon with the officials of KTA at Chosun Hotel on March, 10.

## ☆Mar 13, 1977

The 60th poom promotion test

Place: Kuk Ki Won

Participants: 500 persons

## ☆Mar 19, 1977

Training course for instructors teaching aliens  
Place: Kuk Ki Won  
Participants: 77 persons

☆Mar 20, 1977

The 60th poom promotion test  
Place: Kuk Ki Won  
Participants: 333 persons

☆Mar 22, 1977

Mr Oscar State, Chairman of Executive Committee of World Game I, Visited Kukkiwon and discussed, With Dr Un Yong Kim, President of WTF the Would Game I. He Watched documentary movie of the 2nd world taekwondo championship tournament, had a luncheon with officials, council of technique Chosun Hotel : he expressed great concern over the diapatches to foreion countries of Tae kwon do demonstration teams,

☆Mar 22, 1977

Dr Un Yong Kim President of WTF attends 8th IOC-NOC General Assembly held in Abidzan Ivory Coast.

☆Mar 25-31, 1977

National New Face Taekwondo Championship of the Year 1977  
Place:Kuk Kiwon  
Participants: 942 PerSons

☆Apr 10, 1977

The 61th Poom promotion test  
Place:Kuk Ki won  
Participants:500 Persons

☆Apr 11-12, 1977

Refresher Course for referees in 1977  
Place:Kukkiwon  
Participants:130persons

☆Apr 12, 1977

Public hearing on proposed amendment of competition and referee rules.  
Place:Kuk Ki won  
Participant:100Persons

☆Apr 15~17, 1977

Selection of Korea champions for the 3rd World Taekwondo Championship tournament  
Place: Kukkiwon  
Participants: 312 Persons

☆Apr 18~21, 1977

The 15th Referee Training Course  
Place:Kukkiwon  
Participants:100perSons

☆Mar 30, 1977

Mr Soeworo, Secretary General of Indonesian Olympic Committee recived a Honorary membership of Kukkiwon and watched Taekwondo demnstration.



표지의 말

미국 시카고 경기장에서 열리는 제 3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포스터를 금번-22호의 표지로 선정 하였다. 명실공히 세계적인 스포츠로서 자유진영 최대의 전당 미국에서 우리의 국기 태권도가 우리의 주재아래 그들의 넓은 터전 위에서 열리게 될것은 참으로 보람찬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보다 좋은 기량으로 선전 분투하여 종주국으로서의 면모를 심어주기 를 우리 모두 기원한다.

## 김운용총재 NOC총회 및 IOC-NOC 연석회에 한국대표로 참석

### Dr. Un Yong Kim, President of W. T. F Attends The 8th NOC GA Meeting. & IOC-NOC Joint Meeting in Abidjan Repr esenting the Korean Olympic Committee

김운용 세계태권도연맹총재는 77년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7일동안 아이보리코스트 수도인 아비잔에서 개최된 제 8차 NOC총회 및 IOC-NOC연석회에 한국회의대표로 참가하였다.

87개국 181명의 각국 대표가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몬트 울올림픽결과 분석과 차기 모스크바 대회준비사항등을 토론하였는데 김총재는 동구권 및 비동맹국올림픽인사들과 제반 스포츠관계 및 현안문제로 토의하고 특별히 공산권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에 관한 협조도 받았다.

또한 독일올림픽위원회 명예총무 및 이올림픽위원회위원장의 방한을 협의하였으며 아이보리코스트주재 김용태사범의 현지 활동을 보고받고 태권도발전에 힘쓴 현지인사람들에게도 감사장을 수여하였으며 김용태사범의 노고도 치하하고 귀국했다.

<회의>.....<COUNCIL>

## 각시도지부 및 학교연맹 실무자회의

1977년도 각시도 지부및 학교 연맹의 실무자 회의가 1977년 6월 1일 16시 대한체육회 회의실에서 강원식 전무이사 주재하에 열렸다 이자리에서 강원식 전무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1977년은 정신헌명을 토대로 태권도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여 보다 굳건한 내실을 다지는 해로서 그 어느때 보다도 막중한 사명감과 새로운 정신자세가 요구된다고 전제하며 명실공히 판의식을 저버리고 제 3의 도약을 위한 전환기에서 참된태권도인의 긍지를 살려 서정쇄신 추진에 확고부동한 소신을 세워 모든 부정부조리를 과감히 척결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총화를 저해하는 모든요인을 제거하는데 앞장서자고 제창 하였으며 제반 준수사항 시달과 아울러 체육인 자율정화대회 결의문을 재차 다짐 하는 한편 1시간 30분에 걸쳐 지방 실무자들과의 허심 탄회한 대화의 광장을 마련 하였다.

## 기술 심의회 임원 명단

의 장 : 이 병 로	부의장 : 김 인 석, 이 용 우, 이 교 윤		
지도위원 : 현 중 명,	고 재 천, 이 금 흥		
위원회명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기획위원회	정 중 성	한 광 수, 송 상 근	김삼, 박성홍, 유승선, 신우철, 심재익
심사위원회	최 남 도	김 봉 기, 고 칠 성	전중요, 홍정부, 김철, 강명복, 이상달, 김용희, 조춘호, 전성훈, 임춘길, 김진환, 김강인
교육위원회	김 순 배	김 용 서, 안 영택	장용갑, 임현강, 이증협, 조정신, 김영삼
연구위원회	박 해 만	김재기, 김일상	최인범, 유수용, 이종문, 박종서, 김학균
시범단	권 경 욱		이규정, 정진영

## 전문 위원회 명단

위원회명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경기위원회	박 병 호	우 제 립, 전 용 하 고 의 민,	문학중, 이종대, 김교준, 최정대, 이정연
심판위원회	황 춘 성	이 영 준, 백 수 남 문 창 남,	손항성, 김종신, 박용, 김진위, 박완규
과견위원회	김 용 호	황 대 지, 정 찬 모	이남호, 한효봉, 구양술, 정순규, 이태성
삼벌위원회	김 호 재	노 상 석, 이 재 욱	고성훈, 김종환, 이영철, 김형빈
편집위원회	박 명 수	진 덕 영, 이 병 규	신재도, 이완기, 정재호, 김명환, 강신익



## 해외 태권도 보급에 대한 小考

# Report from Taekwondo Instructor in Indiana

미국 Indiana에서  
안 기 식 사범

오늘날 우리의 國技인 跆拳道는 세계각국에 보급되어 국제스포츠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다는데는 어느 누구도 의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바르게 보급되어야 했을 태권도가 일부 물지각한 지도자에 의하여 왜곡되어진 보급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있다.

다시 말을 바꾸어 말한다면 태권도 정신에 입각하여 태권도로 몸이 익어진 사범들에 의하여 보급되어야 할 것을 태권도가 한낱 생활의 방편인 사업체로서의 태권도로 보급되어졌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를 중시하여 그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태권도 보급에 있어 어떠한 절차와 방법이 있어야겠다는 면에는 조금 소홀했던것 같다. 이로 인하여 파괴되는 많은 불합리한 여건은 왜곡된 태권도를 현지인들에게 이것이 태권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오직 상술적인 면에만 눈이 어두어 군복무당시 익혔던 몇몇 가지의 기초상식이나 얼마 익히지도 않은 짧은 기술로 태권도 학교등을 개설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의 위신에까지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같은 태권도의 지도자로서 부끄러움을 느낄 뿐이다.

그러므로 종주국에서의 태권도 사범의 해외 진출 문제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지도자의 인격, 소양, 재질, 특기를 갖춘 올바른 태권도인이 되어야겠고, 이러한 자질을 갖춘 지도자가 소극적인 의미로서의 보급이라는 Sports전달에 끝나지 않고 적극적인 의미로서 한국을 심을수 있다는 커다란 사명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볼때 태권도 보급이란 비단 태권도인 뿐만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정적 재정적인 적극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격동하는 세계속에 한국의 태권도는 세계의 태권도로 어떻게 보다 훌륭하게 바람직하게, 뛰어나게 전 세계 속에 올바르게 파고들어가 정착할 수 있는나 하는 것은 우리 모든 태권도인들의 최대의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리하여 바로 심어진 태권도 속에 우리의 면면히 이어진 한민족의 맥박을 들을수 있으며 화랑의 기상을 세계단방에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안기식사범)





## 태권도부 졸업생 활동 두드러져

서울미동국민학교

바르고 굳센 애국·애족의 어린이!

금년이 학교창설81주년을 맞는 전통깊은 서울 미동국민학교 교훈이다.

5,000여명의 교사리손들이 지나다니는 본관진 물입구 좌·우에는 세종대왕과 이순신장군의 동상이 우뚝 서있고 교문과 마주보는 넓은 강당은 미동의 태권도부기 전용으로 사용하는 수련장이 기도 하다.

71년 태권도부 창설이래 미동의 태권도부는 줄곧 이곳에서 “진정한 태권도는 기량에 앞서 정신으로”라는 구호와 함께 그동안 특별활동부로서의 여러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그동안 배출한 유품자만도 매년 20여명 이상씩되어 지금은 2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40여명의 유품자와 100여명의 수련생이 수련을 거듭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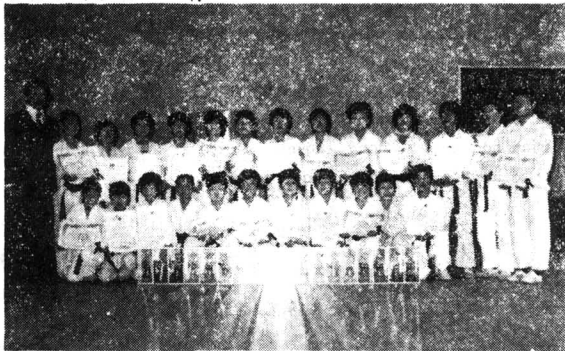
이러한 활발한 태권도부의 활동은 무엇보다도 다른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왔던 것이 가장 큰 효과로 일었는데 류춘상체육주임은 서울시내국민학교 체육주임회의에서도 미동의 태권도부 활동사항을 발표해 주목을 끌기도 하였다.

먼저 태권도부원이 되면 예의에 있어서는 엄격하고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이규형지도사범의 태권도지도방침은 이경란교장도 태권도부로 주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 학교와 학생, 가정과 지도사범의 혼연일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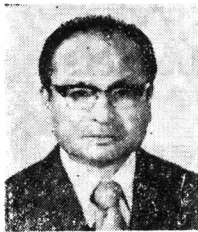
(이경란 교장)

각종 대회에서 상위 입상을 목표로 열심히 수련만을 거듭하여 하루 3시간 이상씩 몸세, 겨루기, 시범업습등으로 일과를 보내고 있다. 또한 재미있는 것은 매일 첫 토요일 태권도부 졸업생들의 모임인데 100여명이 참석을 하여 미동 태권도부 운영에 대한 건의 및 태권도부 장학금 모금등을 벌여 태권도부 졸업반중 진학이 곤란한 동료에게 입학금을 내어주는등 선행을 하여 주위의 칭찬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발한 미동태권도부의 노력은 많은 학교에서의 귀감으로 내일의 태권도주역으로서 올바른 태권도 정신에 입각한 지도이념으로 이들을 배출하는데 헌신적인 노력을 당부한다.



(77년 졸업생 및 동과 기념촬영)





이강목 교장

교육의 일환으로서 오늘날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재정립할 수 있는 것은 예의를 중시하는 태권도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고 부창설 동기를 말한다.

당초 많은 학생들이 산발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어 유단자

인 및 여자부 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상위입상을 목표로 맹훈련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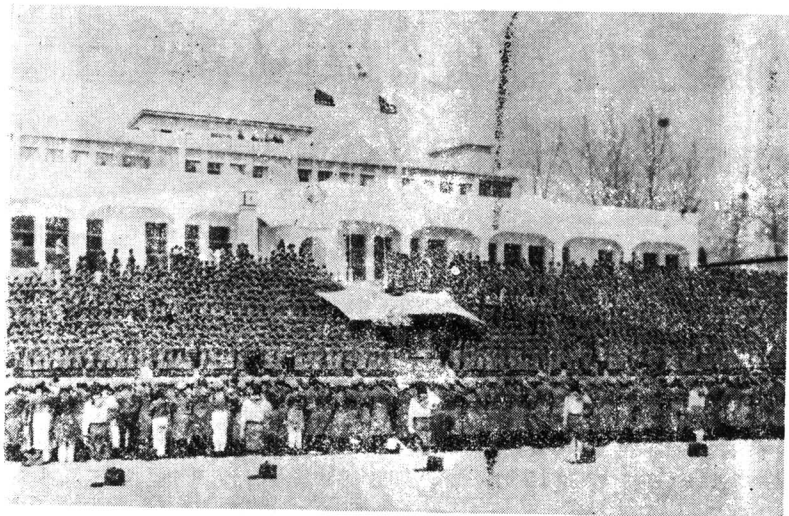
이들을 지켜본 학생들과 학교측에서는 기대 이상의 반응을 보이자 태권도반을 구성하여 보다 조직적으로 태권도 지도를 할것에 구상하고 시범단조직은 물론 78년부터는 전교생에게 보급할 것을 학교방침으로 세우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관심은 태권도 장학생까지도 만들 청사진을 펼치는 백상현교장은 많은 여성 태권도 인구에 비해 이들을 위한 대회도 늘어나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비단 태권도가 자기 자신의 심신의 기량발전의 영역을 넘어 조직적으로 여고생들에게 수련을 할 수 있는 결심을 내린 이강목교장의 뜻을 높이 평가하며 단순히 세인의 이목을 노리는 선전효과에 끝나지 말고 올바른 여성태권도인들의 배출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계속적인 정진이 있기를 당부한다.

만도 6명이나 되며 많은 유급자가 있는 것을 안 박희 권교사는 태권도고단자(6단)로서 은광여자 태권도부를 조직할것을 착안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학생들도 좋은 반응을 보여 200여명의 학생들이 물리자 제 2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학국대표 코치를 맡았던 고의민사범을 코치로 하고 금년에 있을 제 8회 주한외국



은광여고 태권도부 결단식광경

# 각 종 규 정

대한태권도협회 전문위원회와 기술심의회규정을 부분적으로 보완 개정했다. 72년 3월과 75년 8월에 개정된 이래 가장 대표적으로 보완 개정된 규정은 경기 규정과 심판 규정등인데 77년 4월 12일 개정안 공청회를 갖었는데 국기원 강의실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임원들을 비롯 각급 코치 및 지도자 교육을 마친 100여명의 인원이 참관 하였다. 여기 개정된 규정중 77년 9월 1일부터 시행 하제되는 경기 및 심판 규정을 기술하여 본다.

## 경기분과위원회규정

제 1 조 목적 본 위원회는 경기 정반(全般)에 대한 모든 사항을 장악(掌握)하며 질서 정연(秩序井然)한 경기를 운영(運營)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2 조 (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3인 이내
3. 위 원 약간인

제 3 조 (구 분)

1. 체체원(計體員) 약간인
2. 진행원(進行員) 약간인
3. 기록원(記錄員) 약간인
4. 계시원(計時員) 약간인

제 4 조 (사업) 본 위원회는 본회가 주최(主催), 주관(主管)하는 국내·외(國內外)의 모든 경기를 수입(受任) 집행(執行)하며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추첨(抽籤)
2. 대진표(對陣表) 작성
3. 선수 체체량(計體量)
4. 경기중 선수관리(管理)
5. 경기진행(進行)
6. 성적(成績)발표
7. 경기규정의 제정(制定) 및 개정안(改定案)작성

제 5 조 위원(委員) 및 요원(要員)의 자격(資格)과 임무(任務)

1. 요원의 자격은 대회 본부에서 위촉(委屬)된 자
2. 위원, 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체체위원

대회시 규정에 의하여 선수들의 공정(公正)한 체체를 담당(擔當)한다.

나) 진행위원

대회시 경기에 임할 선수를 호출(呼出)하고 코-트를 배정(配定)하며 경기의 진행을 담당한

다.

다) 계시위원

경기중 각 회전 간(回戰間)의 유지(有持)시간 및 휴식(休息)시간을 관리하며, 경기의 시종(始終)을 알려야 하고 주심이 카운트시엔 초간(秒間)을 알려며 주심이 경기 정지(停止)를 선언(宣言)하였을 시엔 중단된 시간 만큼 경기시간을 연장한다.

라) 기록위원

대회시 경기의 판정, 케이·오 및 반칙, 기권의 승패와 교체 승패, 주침승패 등을 정확히 기록한다.

마) 의무요원

경기중 부상 선수에 대하여 응급치료를 담당하며 부상선수에 대한 경기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을 주심에게 충고한다.

제 6 조 코우치의 자격과 의무

1. 코우치는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로서 본회의 코우치등록을 필한자라야 한다.
2. 코우치는 경기중 지정된 코우치석에 위치하여야 하며 경기장 내부를 배회하여서는 안된다.
3. 코우치는 경기 도중 자기편 선수가 끈경에 빠졌다고 인정될시엔 수건을 경기장에 투입하여 기권을 알리므로써 경기를 종료시킬 수 있다. 단, 정당한 공격에 의하여 막아내어 카운트중 일때는 그 기권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제 7 조 선수의 자격과 의무

1. 선수의 자격

경기에 참가하고자 하는 선수는 본 회의 당해 년도 선수등록을 필하고 심신의 결격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

단, 선수등록에 대한 지침은 별도로 정한다.

가) 국민학교부

국기원에서 윤택한 유품자로서 국민학교 5,6학년에 재학중인 자

나) 중학교부

국기원에서 윤택한 유품 및 유단자로서 중학교에 재학중인 자

다) 고등학교 및 대학, 일반부

국기원에서 윤택한 1단 부터 5단까지의 유단자로서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 및 일반인

라) 외국인 및 여자부

본 회에서 인정한 6급 이상의 유급자와 국기원에서 윤택한 1단 이상 5단까지의 유단자

2.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는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선수는 경기중 본회에서 발행한 선수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나) 선수는 손톱 및 발톱을 짧게 깎아야 하고 상대 선수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위해롭게 할 물체를 지니서는 안된다.

다) 선수는 경기 전 또는 경기 중 주류 기타 자극제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라) 선수는 예의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질서 정연한 대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선수는 주심의 선언에 무조건 복종하여야 한다.

바) 선수는 경기 중 불미스런 언행을 하여서는 안된다.

사) 선수는 일방적으로 경기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 아) 선수는 항상 자기의 대전 순위를 확인하고 경기장을 이탈치 말도록 하여야 한다.
- 자) 호명 당한 선수는 자기 코너로 확인한 후 샷보대 및 호구를 착용하고 대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 8 조 복 장

1. 워원 및 요원의 복장  
워원 및 요원은 대회 본부에서 지정한 복장과 실내화를 착용하여야 하며 대회 본부에서 발행한 워원, 요원의 표지를 왼쪽 가슴에 부착하여야 한다.
2. 코우치의 복장  
코우치의 복장은 팀 단위로 제정된 단복 또는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대회 본부에서 발행한 코우치 표지를 왼쪽 가슴에 부착하여야 한다.
3. 선수의 복장  
가)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는 본 회가 지정한 청결하고 단정한 도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나) 선수는 본 회 공인 샷보대 및 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선수는 도복, 샷보대, 호구 이외의 여하한 부착물도 지니서는 안된다.

제 9 조 경기장

1. 경기장은 평탄한 바닥으로서 마루 또는 이와 유사한 물체 이어야 한다.  
단, 경기장 내에는 여하한 장애물도 있어서는 안된다.
2. 경기장의 넓이는 사방 8미터의 정방형으로 하고 사방 8미터 외곽에 2미터의 안전 지대를 둔다
3. 경계선의 표지는 5센치 폭의 백색선으로 하되 정방형의 8미터 안쪽으로 표시한다.
4. 경기장 내에는 주심 및 양 선수의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가) 주심의 위치 표지는 경기장의 중심점으로 부터 배심원석을 향하여 1미터 후방에 직경 10센치의 백색 원으로 표시한다.  
나) 양선수의 위치. 표지는 경기장의 중심점으로 부터 배심원석을 향하여 좌우로 각각 1미터의 지점에 폭 3센치, 길이 20센치의 백색 선으로 한다. 선수의 위치는 배심원석을 향하여 우측을 청, 좌측을 홍으로 한다.
5. 부심, 배심원, 계시원 및 코치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가) 부심의 위치 표지는 경기장의 모서리에서 중심점을 향하여 대각선상의 50센치 후방에 직경 10센치, 폭 3센치의 백색선으로 원을 그리고 배심원석을 향하여 우측 모서리 부터 부심석 표지안에 시계방향으로 1, 2, 3, 4의 숫자를 표시하며, 중심점을 향하여 의자를 놓는다.  
나) 배심원의 위치 표지는 주심의 치로부터 7미터 전방에 폭 3센치로 길이 20센치의 백색선으로 표시하며 경기장을 향하여 책상과 의자를 놓는다.  
다) 계시원의 위치는 배심원석에서 주심을 향하여 우측 1미터의 지점에 폭 3센치, 길이 20센치의 백색 선으로 표시하며 경기장을 향하여 의자를 놓는다.  
라) 코우치의 위치 표지는 양선수에 후방 경계선의 2미터 후방에 폭 3센치, 길이 20센치의 백색선으로 표시하며 경기장을 향하여 의자를 놓는다.
6. 경기장의 용구는 배심용 책상 1개, 의자 1개와 계시용 스톨워치 1개, 호각 및 의자 1개, 부심 코취용 개인 의자 6개와 채점판 4개(연필 포함) 그리고 양선수용 양동이 2개와 발탁개는 청색, 홍색 각 1개를 준비하여야 한다.

제 10 조 경기의 구분

1. 증기부와 고기부



- 가) 중기부는 국기원에서 율허한 1단에서 2단까지의 유단자
- 나) 고기부는 국기원에서 율허한 3단에서 5단까지의 유단자로서 만 19세 이상자.

2. 남자부와 여자부 및 외국인부

- 가) 남자부는 남성으로서 구성
- 나) 여자부는 여성으로서 구성
- 다) 외국인부는 외국 국적을 보유한 자로서 주한 외국인으로 구성한다.

제11조 경기의 종별

경기는 개인전과 단체전(단일 복합식) 2종으로 한다.

1. 개인전

- 가) 개인전의 경기는 각 체급별로 실시한다.
- 나) 경기가 우승부일 때는 준결승전까지는 체제로 승패를 결정하며 가벼운 선수가 이긴다.
- 다) 결승전에서 무승부일 때는 3분 1회 연장전을 거행하고 연장전에서도 무승부일 때는 추첨으로 승패를 결정한다.

2. 단체전

단체전은 단일 경기와 복합 경기로 구분한다.

가) 단일 경기

- 1) 단일 경기의 참가 선수는 체급의 제한이 없으며 제출된 명단에 선봉, 전위, 중견, 후위, 주장 순으로 팀 대항전으로 한다.
- 2) 참가 선수와 수는 정선수 5명 후보선수 1명으로 한다.
- 3) 후보 선수는 정선수가 유고시에 한하여 그 선수에 순번에서 경기를 할 수 있다.
- 4) 경기가 무승부일 때는 양팀 대표를 선출하여 3분 3회 연장전을 거행하고 연장전에서도 무승부일 때는 추첨으로 승패를 결정한다.
- 5) 출전팀의 선수가 2명 이상 출전치 못할시엔 그 팀은 기권으로 한다.

다) 복합 경기

- 1) 복합 경기의 참가 선수는 각 체급별로 개인전 형식으로 한다.
- 2) 참가팀 선수의 수는 각 체급별 8명으로 한다.
- 3) 경기는 참가팀의 각 체급별 개인이 획득한 메달제 또는 등위에 의한 점수제 방식에 의하여 각팀 종합 성적 순위를 결정한다. 단, 메달제와 점수제에 관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 4) 출전팀의 선수가 5인 이상 참가하여야 팀으로 인정한다.

제12조 경기 방식

1. 토너먼트 전

- 가) 토너먼트전은 해당 체급에서 4인 이상 출전치 않으면 그 체급은 경기를 인정치 않는다.
- 나) 참가 선수의 수가 4명을 초과할시 2차전에 진출할 선수의 수가 4, 8, 16, 32, 64, 128 명이 되도록 대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다) 대진 편성수는 대진 상테 추첨 번호 수와 합한 수가 다음수와 같아야 한다.  
(3, 5, 9, 17, 33, 65, 129.....)

2. 리그전

- 가) 리그전은 참가 선수가 3인 이상 이어야 한다.
- 나) 리그전은 아래 도표에 방식에 의한다.
- 다) 경기도중 사고로 인하여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선수의 성적은 사고 당시까지의 얻은 성적

으로 판정한다.

(리그전 도표)

이름	이름	1	2	3
1				
2				
3				

제13조 체급과 증량

체급은 8체급으로 구분하며 각 부별 증량은 다음과 같다.

단 여자부와 외국인부는 별도로 할 수 있다.

체급	부별	국민학교부	중학교부	고등, 대학및 일 반 부
핀	급	23키로이하	37키로이하	50키로이하
루타이	급	23~25.5	37~40	50~54
반 탄	급	25.5~28	40~43	54~58
페 더	급	28~30.5	43~46	58~63
라이트	급	30.5~33	46~49	63~68
웰 터	급	33~36	49~52	68~74
미 들	급	36~40	52~56	74~80
헤 비	급	40키로이상	56키로이상	80키로이상

제14조 대표자 회의

1. 대표자 회의는 경기 개시 3일 이전에 예정된 장소, 시간에 본회 사무국에서 소집하며 참석 범위는 각 팀의 대표자급으로 한다.
2. 대표자 회의 및 경기의 관한 공문은 1개월전에 발송해야 한다.
3. 대표자회의에 의장은 경기위원장 또는 그가 위임한 자로 한다.
4. 대표자 회의에서는 대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토의 한다.

제15조 추첨

경기의 대진 결정은 추첨에 의하여 다음 각항의 따른다.

1. 추첨은 각 팀의 대표자급이 한다.
2. 추첨에 순위는 대회 참가신청 접수순 또는 참가팀 명의 가, 나, 다(Alphabet)순에 의한다.
3. 추첨에 불참한 참가팀에 대하여는 회의 집행부에서 이를 대신한다.
4. 대진표는 추첨번호에 의하여 토너먼트 및 리그전에 의하여 작성한다.
5. 대진표는 대진 순위를 번호로서 기입한다.

제16조 제체량

1. 제체량은 참가팀의 대표자 임회하에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제체위원에 의하여 실시되며 제체기는 정부 검정을 받은 공인품 그대로 한다.
2. 제체량은 경기시작 2시간전부터 시작하며 경기시작 10분전까지로 한다. 단, 경우에 따라 시간을 신축할 수 있다.
3. 제체의 순서는 경량급에서 증량급의 순으로 시행한다.
4. 제체량은 경기 시작일로 부터 경기 종료일까지 매일 실시한다. (단 경기가 없는 당일 선수는 제체하지 않아도 된다)

5. 모든 선수는 계체시 선수 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6. 계체는 건 나체로 하되 2회까지만 허용한다.
7. 계체위원은 선수의 계체가 완료된 즉시 합격여부를 구두로 해당 선수에게 통고한다.
8. 경기중 무승부로서 계체로 승패를 가릴 때는 선수는 경기장을 이탈하면 실격당한다.

제17조 경기의 진행

1. 경기는 3분 3회전으로 하며 중간휴식은 30초로 한다.
2. 여자부 및 국민학교부는 2분 3회전으로 하며 중간휴식은 30초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대회 본부 및 대표자 회의에서 변경할 수 있다.
3. 선수의 호출은 배정된 경기시간 5분전에 첫호명을 하고 1분 간격으로 2회 더 호명을 하며 최종 호명후 1분이 경과되어도 출전치 않을 때는 실격으로 한다.
4. 선수 호출시 첫번째로 호명하는 선수는 "청"코너, 두번째로 호명하는 선수는 "홍"코너로 정한다.
5. 경기는 매 회전마다 주심의 "시작"선언으로 시작되고 계시원의 경기 종료 신호에 의해 주심의 "그만"선언으로 종료 된다.
6. 선수는 마지막 회전이 끝나면 지정된 위치에서 주심의 명령에 의해 예(禮)를 하고 경기 결과의 판정이 끝난후 경기장을 떠나야 한다.
7. 단체전(단일경기)에 있어서 선수의 순번에 이의가 있는 때는 경기 시작 전에 코우치 또는 팀의 감독 및 대표자가 대회 본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경기분과 위원회에서는 이를 확인하여 시정한다.
8. 단체전(단일 경기)의 경우 제출한 선봉, 전위, 중견, 후위, 주장 순으로 배심원석을 향해 종대로 정렬한 후 주심의 구령에 의해 예를 한다. 예를 마친후 지정된 장소에 질서 정연한 자세로 앉아서 대전 순위를 기다려야 한다.
9. 단체전(단일경기)의 대전 순위는 6항의 순서에 의하며, 경기의 시작과 끝은 개인전 때와 같다. 팀의 경기가 끝난 후는 종대로 정렬하여 주심의 명령에 의해 예를 하고 경기 결과의 판정이 끝난 후 경기장을 떠나야 한다.

제18조 경기의 식전 행사

1. 대회 본부는 다음과 같이 개최식, 폐회식 및 시상식을 진행한다.

가) 개최식

- 1) 선수 입장
- 2) 개최 선언
- 3) 국민 의례
- 4) 개회사
- 5) 축 사
- 6) 선수대표 선서
- 7) 개최식 종료 선언

나) 폐회식 및 시상식

- 1) 선수 입장
- 2) 성적 발표
- 3) 시상
- 4) 폐회사

5) 폐회 선언

6) 선수 퇴장

2. 입상자 선수가 시상식장에 불참시는 상장 및 부상을 수여치 않는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한 자는 별도로 한다.

3. 입상된 선수는 규정된 태권도복을 착용하고 시상을 받아야 한다.

4. 입상자 명단과 기록을 사무국에 이첩 보관케 한다.

제19조 부 칙

1. 대회중 발생한 제반 사고의 대상자를 색출하여 이에 대한 상황을 상벌분과 위원회에 회부한다

2. 경기도중 부상 선수가 발생하였을 때는 대회본부에서는 조치비를 부담한다.

3. 경기분과 위원회에서 태권도 경기의 발전을 위한 경기 시설물 및 용구의 공인을 할 수 있다.

## 심판분과위원회규정

제 1 조 (목 적) 본 위원회는 심판의 업정 증립과 심판의 권위를 확립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구 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3인 이내

3. 위원 약간인

제 3 조 구분 및 자격

1. 심판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1급 심판원

나) 2급 심판원

다) 3급 심판원

2. 심판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1급 심판원은 국기원에서 율허한 7단 이상자로서 2급 자격증을 소지한 후 본 회에서 주최 또는 승인하는 전국 규모 대회에 20회 이상 배심 또는 주부심으로 참가한 자 및 코치로 40회 이상 참가한자.

나) 2급 심판원은 국기원에서 율허한 6단 이상자로서 3급 자격증을 소지한 후 본회가 주최 또는 승인한 대회에 15회 이상 주 부심으로 참가한 자 및 코우치로 30회이상 참가한 자

다) 3급 심판원은 국기원에서 율허한 5단 이상자로서 본회가 발행한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3급 심판 시험에 합격된 자.

단, 심판자격 시험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 4 조 사 업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심판원의 관리, 감독 및 고가표 작성

2. 대회시 심판원 배정

3. 지방 및 각종 대회의 심판원 파견

4. 각급 심판원 교육 및 자격시험 실시

5. 국제 심판요원 간선

6. 심판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

제 5 조 심판원의 관리 및 감독

1. 본 위원회는 심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항상 심판원의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한다.
2. 대회시 각급 심판원의 성적을 알기 위하여 제사항을 기록 카—드에 기록하며 비위 사실이 인정되면 행정조치를 한다.

제 6 조 심판원의 관리 및 의무

1. 심판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가) 심판자격증 소지자는 본회가 주최 또는 승인한 대회에 중앙 및 지방을 막론하고 심판원이 될 수 있다.
  - 나) 심판원은 소정의 경력이 갖추어지면 승급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 심판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 가) 심판원은 대회시 본 위원회로 부터 심판원 위촉이 되었을시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회 48시간 전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심판원은 대회시 대회 본부에서 지정한 복장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다) 심판원은 대회시 공정한 판정과 채점을 하여야 한다.
  - 라) 심판원은 당해 경기의 심판원으로 위촉되었을 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참가팀의 임원이 될수 없으며 선수의 코우치 행위를 할 수 없다.
  - 마) 본회가 승인한 지방대회의 심판원 명단과 고가표는 대회 종료후 7일 이내에 대회 본부에서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바) 심판원은 년 1회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심판원의 교육 및 자격시험

1.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심판원의 교육을 실시한다.
  - 가) 심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각급 심판원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보수 교육을 실시한다.
  - 나) 심판원의 보충이 필요할 때는 3급 심판원 교육을 실시한다.
2.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각급 심판원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 가) 3급 심판원은 소정의 심판교육을 수료하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된 자
  - 나) 2급, 1급 심판원은 제 3 조 2항의 결격사항이 없는 자로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된 자

제 8 조 심판원의 구성과 배정

1. 심판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가) 배심 1명
  - 나) 주심 1명
  - 다) 부심 4명(경우에 따라 2명)
2. 심판원의 배정은 다음과 같다.
  - 가) 배심원은 위촉된 자 중에서 순번을 정하여 배정한다.
  - 나) 주 부심은 위촉된 자 중에서 5명 (또는 3명)을 1개조로 편성하며 주 부심 교대는 경기장 모서리에 표시된 순번대로 교대한다. 단, 부심이 2명이 될시엔 1, 3번에 위치한다.

제 9 조 심판원의 임무 및 권한

1. 심판원은 다음의 임무를 갖는다.
  - 가) 3급 심판원은 부심을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주심을 담당할 수 있다.
  - 나) 2급 심판원은 주심을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배심을 담당할 수 있다.
  - 라) 1급 심판원은 배심을 담당한다.
2. 심판원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부 심

- 가) 부심은 선수가 득점하는 즉시, 감점 및 경고는 주심이 선언하는 즉시 채점표에 기재한다.
- 나) 부심은 회전이 끝나는 즉시 채점표에 승패를 표시하여 주심에게 수교한다.
- 다) 부심은 배심원 및 주심이 득점, 경고, 감점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는 사실대로 진술하여야 한다.

주 심

- 가) 주심은 경기의 주도권을 장악하며 경기진행시엔 “준비” “회전”수 “시작” “갈려” “계속” “그만”의 용어를 사용한다.
- 나) 주심은 경기 시작 전에 선수의 복장과 부당한 장비의 유무를 점검하고 선수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려 준다.
- 다) 주심은 경기의 시종, 경고, 감점 승패, 연장, 퇴장을 선언한다.
- 라) 주심은 경기 중에 항상 양 선수에 가까운 위치에 따라 다녀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엔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
- 마) 주심은 경기 중 선수가 반칙(경고, 감점)을 행하였을 때엔 경기를 중단시키고 선수와 주심의 원 위치에 와서 반칙에 대한 선언을 하여야 하며 주의사항을 범했을 때엔 경기를 중단시키고 적당한 위치에서 주의를 알리고  
접근전 눈도 서로 잡았을 때에도 “갈려”한 후 양선수를 서로 2보 뒤로 물러나게 한 후 그자리에서 “계속”시킨다.
- 바) 주심은 경기도중 선수가 기권하거나 또는 코우치가 수건을 던져 기권을 표시하였을 때나 고의 또는 자연 전의를 상실하였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경기를 진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시엔 지체없이 경기를 중단시키고 승패선언을 한다.
- 사) 주심은 경기도중 불가항력으로 1분 이내에 경기를 계속하지 못할 시엔 패자로 선언 한다.
- 아) 주심은 경기도중 필요에 따라 경기시간 정지를 선언할 수 있으며 계시원에게 통고한다.
- 자) 주심은 경기 종료후 부심으로 부터 받은 채점표를 배심원에게 제출하고 소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 차) 주심은 경기 중 정당한 공격에 의하여 선수가 다운되었을 때엔 오른손으로 카운트를 하며 10(10초)을 세어도 다운된 선수가 경기에 임할 수 없을 때는 상대 선수에게 케이오 승을 선언한다.

배 심

- 가) 배심원은 부심의 채점표와 주심의 소견을 배심 채점표에 기재한 후 득, 감점을 비교하여 승패를 결정한다.
- 나) 배심원은 주, 부심의 오판이 있다고 인정될 때엔 지체없이 판정을 조절하고 해당 주, 부심의 교체를 본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득점, 감점 및 경고 사항

1. 득점부위 및 득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득점 부위

- 1) 몸통부위 : 가슴, 양옆구리, 배(아래배는 제외)
- 2) 얼굴부위 : 양귀를 중점으로한 얼굴 전면 및 목(발차기에 한함)

나) 득점사항 및 점수

- 1) 주먹치르기 : 완전한 자세로 만일 공격을 하여 강타일 경우에 한하여 1점 다운시켰을 때

2점

- 2) 발차기는 : 몸통을 찔때 2점(다운시켰을 때)  
1점(맞았을 때)  
얼굴을 찔때 3점(다운시켰을 때)  
2점(강하게)  
1점(맞았을 때)
- 3) 두발이 공중에 뜬 상태로 얼굴을 찔때 3점(강하게)  
2점(맞았을 때)

다) 득점부위를 경계하였어도 득점치 못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주먹 또는 발로 공격을 가한 후 바로 넘어졌거나 또는 상대방을 껴안을 때
- 2) 접근(거의 붙은 상태)하여 공격할 경우

2. 감점사항

경기중 선수가 다음의 반칙 행위를 하였을 때엔 주심은 감점 1점을 선언한다.

- 가) 넘어진 상대를 고의로 공격하였을 때
- 나) 얼굴을 수권으로 공격하여 상처가 생겼을 때
- 다) 머리로 박치기 하는 행위
- 라) “갈러”선언후 고의로 공격하는 행위

3. 경고 사항

경기중 선수가 다음의 반칙 행위를 하였을 때엔 주심은 경고 1을 선언 한다.

단 경고는 1회를 감점 0.5점으로 계산하며 2회를 범하여도 감점선언은 하지 않는다.

- 가) 얼굴을 수권으로 공격하였을 때
- 나) 무릎으로 공격하였을 때
- 다) 낭점을 공격하였을 때
- 라) 잡아 넘기는 행위
- 마) 주심이 경기 속행을 명령하는 메도 업살을 부릴때

4. 주의 사항

경기중 선수가 다음의 비신사적인 행위를 하였을 때엔 주심은 선수에게 주의를 준다.

동일 회전에서 2회를 받았을 때엔 주심은 경고 1을 선언한다.

- 가) 상대를 잡았을 때
- 나) 등을 보이고 피할 때
- 다) 라인밖으로 나갔을 때
- 라) 라인 주위를 도는 행위
- 마) 어깨나 몸으로 밀었을 때와 손으로 강하게 밀었을 때
- 바) 고의로 넘어졌을 때

제11조 채점표 및 채점방식

- 1. 채점표는 배심용과 부심용 2종으로 한다.  
(별지 양식 1,2호 참조)
- 2. 부심의 채점, 승패 표시는 다음의 부호로 한다.
  - 가) 득점 1점은 1로 2점은 11로, 3점은 111로
  - 나) 감점 1점은 1로

다) 경고 2회는 1로 2회는 11로

라) 승자 표시는(크게) ○으로 채점표 청, 홍 글자에 표시한다.

마) 비김에는(크게) △으로 채점표 중앙에 표시한다.

3. 배심원의 채점 방식은 득점, 감점, 경고시엔 "2"항의 부심용과 동일하며 주심 및 부심난언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가) 주심판 : 매회전 주심의 의견을 들어 승자내는 ○표, 패자에겐 ×표, 비김에는 △표시로 작  
자 한다.

나) 부심판 : 매회전 부심의 득점 숫자를 각각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 제12조 판결의 종별

##### 1. 판정승

경기가 끝난 다음 배심, 부심의 채점표에 득·감점을 비교하여 득점이 많은 선수를 승자로 한다.

감점 1점은 득점 1점과 상쇄되며, 경고는 2회를 득점 1점과 상쇄된다.

##### 2. 기권승

경기자가 대전중 부상을 당하였거나, 기타 이유로 경기를 자발적으로 기권하거나, 코우치가 수  
진을 경기장에 던져 기권을 표시하였거나 또는 휴식후 경기를 즉자 속행하지 못할시엔 상대 선  
수를 승자로 한다.

##### 3. 케·이오 승

정당한 공격에 의하여 선수가 다운되어 카운트 10(10초)이 경과되었을 시엔 상대 선수를 승자  
로 한다.

##### 4. 주심의 지권에 의한 승

가) 주심의 의견으로 한 선수가 일반적으로 우세하고 상대 선수가 방어 능력을 상실하여 더이  
상 과도한 공격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시엔 경기를 중단시키고 상대선수를 승자로 선  
언한다.

나) 선수가 경기중 부상으로 인하여 경기를 진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경기를  
중단시키고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상대선수를 승자로 선언한다.

##### 5. 감점패

선수가 경기 중 통산 2회의 감점을 선언당하면 감점패 당한다.

##### 6. 반칙에 의한 쌍방패

선수가 반칙에 의하여 다운되어 1분이 경과하여도 경기를 속행할 수 없을 시엔 쌍방이 패가 된다.

#### 제13조 주심의 싸인 종류 및 방식

주심은 경기 진행시에 다음과 같은 싸인을 한다(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14조 부 칙

1. 본 위원회는 대회시 심판을 담당할 배심원 및 주, 부심이 해당 경기에 오관을 초래하여 들의  
를 야기시켜 심판원회의 권위를 추락시켰을 때는 평가 회의물 거쳐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 다  
음의 처벌을 한다.

가) 경 고 나) 기한부 자격 정지

다) 본 위원회는 대회중 심판원의 평가와 행정처분 결과를 심판원 기록 카—드(양식3호)에 기  
재 한다.

3. 본 위원회는 심판원 자격을 획득한 후 3년간 심판 활동을 하지 않던지 또는 심판 보수교육을  
필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심판원 기록 카—드에서 자연 제척시킨다. .



# 태순양

최경철



# 제58회 승품심사 합격자 (77. 1. 16)

## (The 58th Poom Promotion Test)

### 1 품 (First Poom)

김종우	김기현	이우석	유현수	최 훈	김영주	박순이	서전현	김광수	김정열
김현석	김학준	최용준	정지용	김수현	김용선	이명훈	김옥중	김길만	윤철중
김장환	김부성	이진수	정춘근	장기범	서성원	김석범	조창범	박영미	김준한
박종구	김학형	김재강	임형국	장석원	임영민	박종신	최선일	박계준	김택수
조시연	이동수	박치용	김종필	박동현	이효일	황영재	김진성	박성준	김순일
한대희	김용재	김석현	김종상	정현진	노성용	안경모	이재욱	방계상	이홍수
심형석	안대식	황은주	이진범	배평호	이동진	최희찬	윤필중	이정구	박종주
김규호	박노준	이봉기	이창배	이은형	임준규	김철한	김애경	최 환	최민철
정승기	최진호	김진수	박정수	최원석	조원익	하 일	조현수	김정호	김재민
김완섭	문장규	이태규	박성완	백 영	용일중	편재범	연유진	심청우	최진규
김종석	이보선	김기영	배대성	안중준	조정호	전종억	정재선	조영상	여 진
정인기	이준일	김파봉	최중혁	임시정	최준서	박노성	박재현	권재민	여성모
김주용	박종익	유성봉	장재일	윤세웅	이은서	전진욱	서희용	민규호	박종욱
권석진	김 훈	한장원	임상진	장석욱	현동윤	이원기	이문성	안병호	이병훈
배영구	김동식	김진환	박기현	정재학	송재화	김성훈	김승배	전학숙	채혁희
김규산	배영섭	조대호	주보호	권석권	이한우	최수연	이재석	정준호	하은진
원기범	안호영	김신태	박희철	최승열	박지호	이혁주	박지현	유창현	장승욱
김영오	신영택	윤성호	이승표	박상용	최수미	박진용	정태진	조진연	문강용
황인수	김태용	윤우영	박종환	이진호	강봉석	최준서	정성문	오창욱	권극삼
김상준	최성호	백하경	박수종	파대훈	길명호	강성진	윤은아	이영열	고정암
권광호	강공우	권순표	전우형	이석원	이태규	신규창	박동규	최승권	이인호
인고·자보롭스키	김현규	전표경	이행준	황상우	신광철	이상호	우명철	진영호	이정우
조형배	최진원	김종환	정문철	황상우	박윤규	임석훈	최기성	홍중완	주태진
양영주	강중구	강 용	주유창	안대석	이태진	이도형	염석원	이경원	장 민
김규동	정한성	나재섭	심금섭	정진형	윤성필	곽종국	이창용	서정택	김상윤
김용기	신학선	김영일	이승준	조성진	김상윤	김장호	김람기	이남호	강승찬
윤창록	서동현	김태성	김창길	이종진	추교혁	이종호	방두홍	김기창	조승현
김용운	이진영	김영일	홍순일	김희진	최대경	연동욱	정재민	허 훈	이진우
유창수	오규식	전경진	설 종	차주연	황용규	이영섭	원호연	서영호	이동준
송보강	윤홍덕	용석규	임민웅	노동훈	김경수	송지인	오근준	김용덕	최규홍
					최재훈	조창현	김성은	박용균	김기용
					최명철	윤진현	권낙연	정상혁	김재국
					변교부	전병기	강석현	김남진	윤길홍

권형석	이영석	오정재	우종균	백영미
유승주	유승우	정준배	홍진기	천성국
김종실	천호중	박인오	김영목	김선일
신중호	정기중	유영혁	정진교	남윤환
장기용	김홍순	김원배	허광식	신원희
이 욱	안효수	어 광	이문규	김봉환
전상준	오기상	박승배	박명울	강창희
노주환	조도형	조홍근	임성준	김승영
윤영균	이종원	윤성원	임정욱	강중원
장개룡	임상욱	김지택	한 철	박영수
Larry L. Makaisu	이 진	박갑용	전상호	
이경구	박인수	지명규	윤영중	박재상
오광근	이 현	박용선	주성완	이 훈
박정구	이효원	진기일	김태형	박상선
송기영	장기영	곽 호	배상준	김상일
전상온	장동혁	이수권	이재필	권태순
이수용	이용호	한석호	정재우	김홍석
박홍진	김영석	서찬용	조철원	김도식

박종오

2 품 (Second Poem)

박경호	이영기	임명환	김명교	이혜욱
손범석	이호성	현진우	이경엽	김보선
안호영	신창연	이로노	박권훈	우대희
김용세	정대일	이형식	공준성	조규호
최일권	서길성	유승훈	박재민	임용수
전영규	이성준	양재형	한유덕	은종철
이현일	조인국	고광준	유재현	박영민
박봉원	윤덕수	조요수	오치영	정광수
정태삼	이충휘			

3 품 (Third Poem)

조종기 김경성

# 제59회 승품심사 합격자 (77. 2. 13)

## (The 59th Poem Promotion Test)

1 품 (First Poem)

김승태	고영훈	윤성규	조도영	고대근
하태원	허상기	서성환	송재용	김봉희
문상락	윤일선	원승재	이순영	김동은
윤중호	최정희	최준일	윤영철	경성진
백문현	장문영	조용호	유상준	권혁진
홍석현	오명화	윤경상	윤기정	허용석
최병인	이승	심재현	이규세	신동철
황수원	조중현	탁희석	정경영	오광식
최준용	김동원	박준태	선종호	박 인
김영호	김승균	이승구	이원희	조영구
배호근	유진호	이진휘	전재문	김 철

이병엽	김기홍	오종후	라현용	심성훈
이승준	이세규	이석형	이재성	최상일
최 철	김기태	최승민	노윤상	김경엽
조효중	노완수	김영만	임재민	김규원
장혁수	김일영	김광진	이종훈	이영훈
김정호	이승일	이등규	박성규	김정욱
정지원	문호혁	권태영	문귀정	김인진
서 민	이세훈	최경원	박용규	강영신
박영준	이기성	김지만	문제창	박영재
석동원	한복수	유종덕	권태안	임종성
박태홍	심기준	김도현	이창익	이영규
안종원	이용진	김유철	손길수	정무상
허성혁	양원석	이광신	신승환	성준호
박형경	정 중	Kevin Phelp		김현석

■ 합격자 명단 ■

■ LIST OF SUCCESSFUL APPLICANTS ■

김정환 이영호 정홍수 정성수 김성수  
 김성호 황신유 이신철 황신진 유병협  
 최영천 원진희 장원준 김성민 최광열  
 엄광식 장형석 김대명 신문호

정태영 정연찬 김동남 김천희 사해경  
 이병권 신성식 이승호 강동원 유승길  
 송규천 이병천 유지현 임성규 밤병열  
 차준천 박동훈 김은태 김석용 박정순  
 이정진 김 력 이승재 최영규 최 영  
 성준호 김완규 남유경 박종욱 이학수  
 안영훈 송재민 조상연 신상천 이흥기  
 박인규 이 은 김봉석 이승원 라동준  
 최원영 한진호 전재호 김정남 김수천  
 홍판기 김성문 이민한 이석주 정대석  
 이성규 이지용 김용수 박명한 박원기  
 강석원 박진홍 서진석 이상우 박종욱  
 구자한 이승준 최진수

2 품 (Second Poem)

신규신 김정현 이흥기 김태흡 심성기  
 유태섭 정광신 고신준 강성준 김홍렬  
 서정준 조성일 박상호 박종서 이원재  
 최민재 김형준 박정환 민경필 서수석  
 백운규 김종문 신준형 이영민 서은호  
 권옥천 김홍구 박상헌 김진기 김재록  
 김태희 박주일 이한경 김백천 손성태  
 김효종 김삼덕 박상헌 서정일 정지성  
 한기성 김영웅 강석호 신종전 이진우  
 김태호 이진원 윤강원 최성훈 정연찬  
 김배 안재구 김병태 이상덕 박종호  
 최진몽 정연태 최대호 이동수 임창환

3 품 (Third Poem)

이백삼 조윤희 장성원 김지연 현무성  
 조용운 권병삼 송기원 허 건

# 세계화의 태권도와 태권도지



박 명 수

편집분과위원장 박명수

태권도의 전문지인 “태권도”가 발간된지도 어언 7년! 처음의 것은 태권도의 발전계획이 무르익던 1971년 3월이었고 금번의 것은 그 實行이 마무리되어 가는 22번째의 책이 된다.

오늘날 태권도는 國力の 成長과 더불어 국내·외의 인정을 받으면서 驚異的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태권도인의 國技로서의 태권도에 대한 긍지를 지니고 있다. 果然 태권도인이 우리의 태권도 발전을 위해 얼마나 이바지 하여 왔는가는 歷史家들의 賢明한 평가에 맡길 일이지는 하지만 會長님을 비롯한 뜻있는 태권도인의 중추적 역할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들이켜 볼 때 協會와 國技院은 발족 당시부터 모진 시련을 이겨냈고 태권도를 아끼는 사람들과 고난을 같이했으며 그 귀와 눈, 그리고 입의 역할을 맡은 “태권도”지는 태권도인의 자질향상에 燈불을 밝혀왔다.

그 보람이 있어 오늘날 永東의 광활한 터전에 百年大計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大殿堂인 國技院을 마련하였고, 世界大會의 開催와 亞細亞大會의 開催, 그리고 昇段審査의 단일화, 指導者 敎育館統合 等 内外의 公面에 충실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發展의 歷程은 결코 우연한 일 아니다. 태권도의 Sports로서의 歷史는 비록 15年에 불과하나 그 뿌리는 三國時代에 이르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김운용 회장님의 “태권도 발전계획” 권과 전 태도인의 有形無形의 밑받침이 없었던들 오늘과 같은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뜻있는 태권도인이 “나라”는 個人主義를 버리고 “우리”라는 共同運命體로 굳혀졌기 때문이며, 서로 도우고 서로 양보했기 때문인 것이다.

오늘의 태권도는 어제의 태권도는 아니며, “나”만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이며, 나아가 세계인의 것으로 세계적 Sports의 면모를 갖추고 격동하는 現代社會 속에서 의연히 우뚝 설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태권도”지는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지도자와 태권도인들에게 배우고 가르치는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며, 스스로 연구하고 지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태권도의 국제적 우수성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복돋아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스포츠오르거는 타고난 초질만의 단계에서 과학적인 이론과 기술을 바탕으로 훈련과 지도의 방법이 科學化의 단계로 상당히 빠른 템포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트레이닝에 필요한 기구나 이론도 그것을 근거로 제작되고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重大한 의의를 지닌 “태권도”지를 말는다는 것이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이 없지 않겠으나 協會의 임원 여러분과 태권도 발전을 위해 뜻을 같이해 주실 동료들의 협조와 此正과 더불어 刻苦의 勞를 아끼지 않고 最善을 다할 것을 約束한다. 1971년 5월 일

## 계간 태권도지 구독안내

날로 뻗어가는 태권도는 세계를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태권도지 애독자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어 최를 거듭할수록 발행부수는 늘어나는 기쁜 소식을 애독자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태권도지구독을 문의하시는 많은 애독자를 위하여 정기구독신청을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접수하고 있으니 이용으시기 바랍니다.

보낼곳: 우편번호 100

서울중구우교동 19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지 구독담당자앞

1년간 구독료: 1,240원(송료포함)국내	
: 6,000원( // )해외	

.....절.....취.....선.....

No. \_\_\_\_\_

주 소	우편번호
성 명	구독구분

- ※ 1. 정자로 정확히 명기할것.
- 2. 구독분에는 1년간과 6개월을 정확히 구분하여 써 넣을 것.
- 3. 구독료는 소액환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낼것.

## 각종 교육 현황리에 열려



(기본 품세를 반복하는 홍일점 신신자 수강생)

77년을 맞아 각종 교육이 현황리에 개최되고 있다. 3월의 첫주인 3일부터 12일까지 거행된 제19기 지도자교육은 갑자기 떨어진 기온의 강하로 영하 10°C로 오르내리는 꽃샘추위에도 불구하고 10일 동안 93명의 수강생들이 태권도의 지도자로서 첫 입문을 하였다.

또한 제15기 심판강습회도 77년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 동안 국기원에서 100명의 수강생들이 참가하였는데 지도자 교육을 이수한 4단 이상자에 한하여 교육에 참가하였다.

신장환	金基福	이수영	한명학
윤봉석	안해옥	金永旭	박한규
김태균	이천수	이양술	탁명래

### 제15기 3급 심판 합격자 명단

張奉澤	朴昌祐	具承旭	李淳東
강성환	최종현	昔時鎔	이종수
盧承宰	박경선	朴啓洪	정금모
김연경	이창규	吳炳浩	朴永吉
盧壽吉	林虎元	장용갑	한광식
서명기	정경학	金石宰	유백만
우영일	金億坤	金光成	이호형
尹錫九	金永祚	허동일	고태정
이영학	배영규	이윤석	이희원
이춘원	임희영	김영철	신범승
이종찬	안해옥	최재우	전만식
이이관	김정대	신문희	金斗滿
김종진	김희열	노달선	최형목
이환진	전종오	김민규	金正煥
최건민	이필재	임현장	이광섭
양태화	尹錫鎬	강신익	이종호
임창목	김인희	金井來	장석봉
안병훈	임동백	김영목	정해문
안두전	임정학	김재우	박정현
김복식	엄태순	강한경	조규학
전광열	신인철	심재익	이영철
박찬수	구정도	오수근	박영구
홍재환	엄용석	구영채	강성길
	이근수	고상화	김정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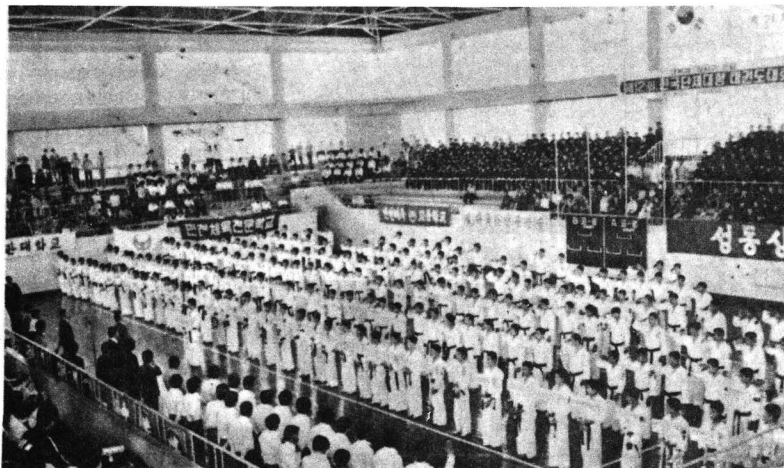
### 제19기 지도자 교육 합격자 명단

정의명	김정대	이찬규	김창성
고상화	김진화	김종주	이영세
김영호	서정복	俞猶魯	이윤석
안현계	金億坤	남남진	李淳東
이정근	강성환	남형수	김상호
이해명	朴永洙	이춘원	이종호
라영수	이종철	金仁徽	허동일
여대현	박창우	박규복	이종덕
안병훈	金明男	안주영	金炯坤
노승재	全忠五	신형석	李 鳳
金敏洙	金敏植	金斗滿	윤영중
金祥根	형성훈	金煥雨	漁鮮鎬
전정길	백운화	심형기	고길수
金正九	金基琿	金相球	崔奘烈
金正煥	황해국	임택중	이호형
朴京先	辛永重	유병인	이이관
朴啓洪	牟鍾熙	임현장	박경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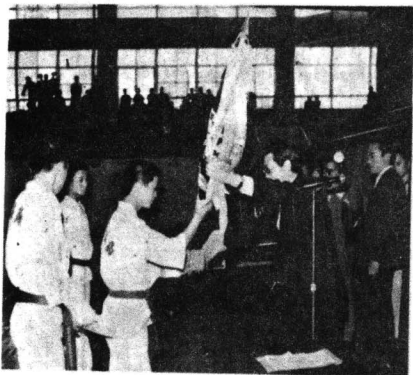
대통령하사기쟁탈

# 제12회 전국단체대항태권도선수권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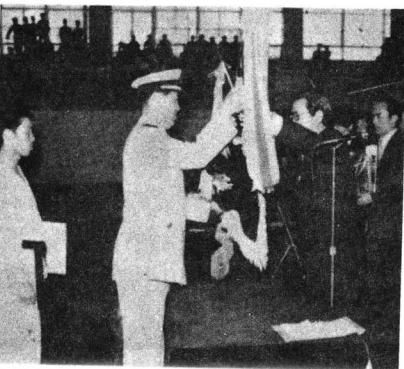
—The 12th Presidential Flag Taekwondo Championships—



일반부 23개팀 학생부 28개팀이 출전한 입장식 전경  
The Opening Ceremony which was participated  
by 23 general teams and 28 students teams.



일반부 우승팀 시상광경  
Champion in High school division at Closing Ceremony



고등부 우승팀 시상광경  
Champion in General division at Closing Ceremo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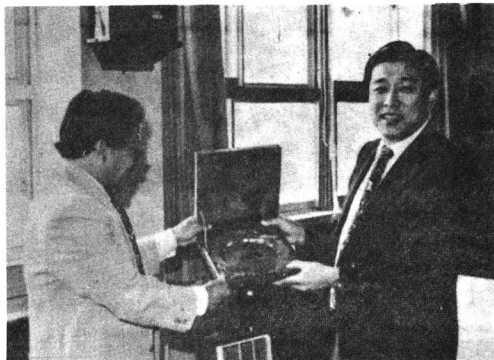


조시아 헨슨 미체육회 부회장과 존 · 디켈리부  
처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은 국기원에서 김홍  
재로부터 명예단증을 수여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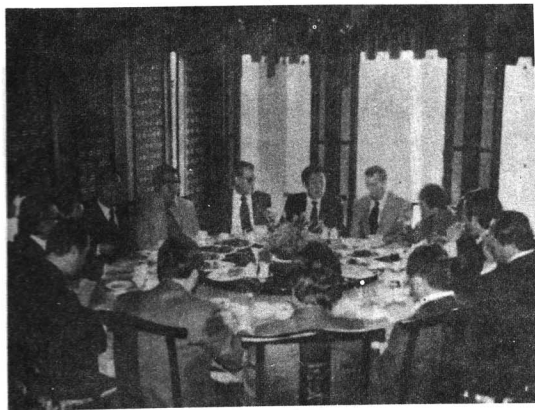
**Mr. Josian Henson, Vice President of AAU  
and Mr. John D. Kelly, Vice Chairman of  
US Olympic Committee received Honorary  
Dan Certific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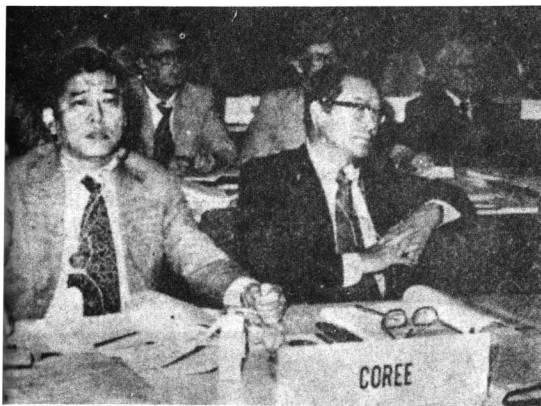
인도네시아올림픽위원회 사무총장은 국기원을  
방문하여 김운용위원으로부터 영예회원증을  
받고 태권도 연무시범을 관전하였다.

**Mr. Soeworo, Secretary General of  
Indonesian Olympic Committee Received a  
Honorary Membership Certificate of  
Kukkiwon and watched Taekwondo  
demonstration.**



조선호텔에서 협회임원들과 오찬  
Luncheon with the officials of KTA at  
Cho-Sun Hotel.





8차 NOC총회 및 IOC-NOC 연석회의에서의  
 김윤용 KOC부위원장겸 명예총무와 이원경  
 KOC상임고문  
 Scene of the 8thNOC,IOC-NOC conference  
 in Abidjan Dr. Un Yong KIM and Mr.  
 Won Kyung LEE

아이보리코스트 협회 임원들과 함께  
 With Members of Ivory Coast Olympic  
 Committee and Taekwondo Federation



제 3 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파견 한국대표선수에 선발된 명예의 입상자들  
 Korean team selected for the 3rd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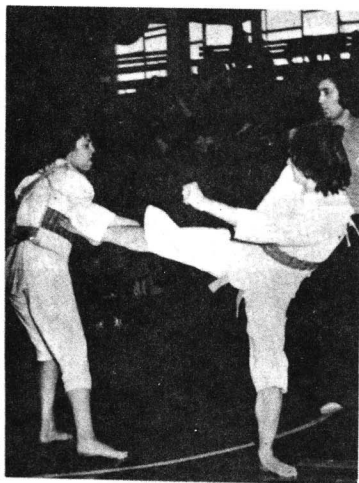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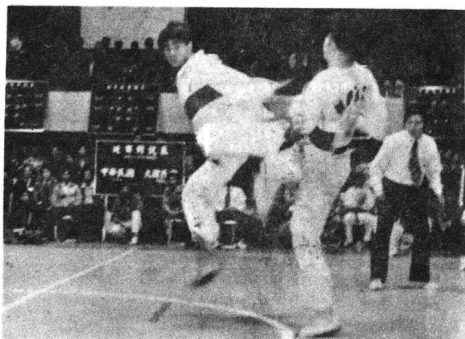


종합우승을 차지하고 김포공항에 개선한 한국 대표선수단

Korean Taekwondo Champions returned to Kimpo Airport after winning from Taiwan.

헤비급 결승전에서 점프차기로 득점을 올리는 자유종국선수

Competition scene in Heavy weight division,



폴란드에 벨어간 태권도

Taekwondo activities in Poland.



터키태권도 선수권대회 경기장면

Taekwondo Championship Tournament in Turkey.



브래디 미2사단장이 김운용 총재로부터 명예 단증을 받고 있다

General Brady, Commander of US Army 2nd Division received a Honorary Dan Black Belt Certificate.

호주에서 활약하는 이종철 사범은 국기원을 방문 김총재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Mr. Lee, Chong Chul, Taekwondo Instructor in Australia visited Kukkiwon.



레소토 존 테보호 크레닌 국회의장이 남대문국민학교 태권도 시범을 관람하고 시범단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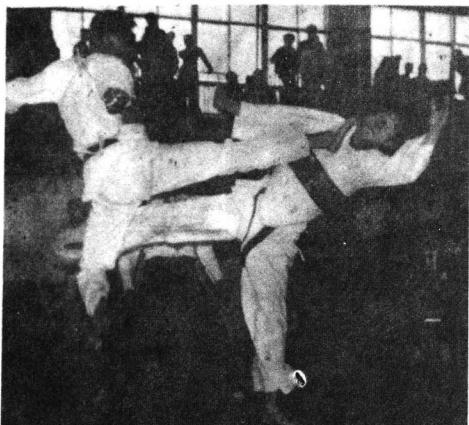
Mr. John Teboho Kurenin, Speaker of National Assembly of Kingdom of Lesotho inspected Taekwondo demonstration of Namdaemoon Primary School.



사막의 나라 요르단에서도 태권도 시범은 인기를 독차지 하고 있다

Demonstration of Taekwondo in Jord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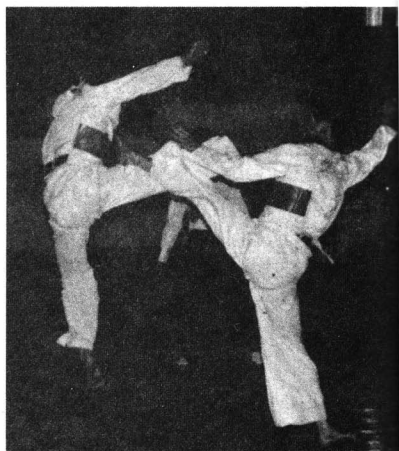




제 3 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파견 1차 선발전  
(미들급경기)

The 1st elimination competition for 3rd World

제 4 회 전국 중고연맹전에서(준결승전)  
The 4th Nation wide Secondary  
Schools ma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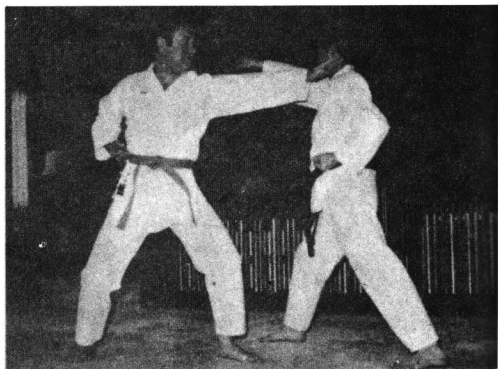


1977년도 신인선수권대회

The National Championship for New Contestant.

주한 이태리대사의 태권도 수련장면

Italian Ambassador Crema taking  
Taekwondo trai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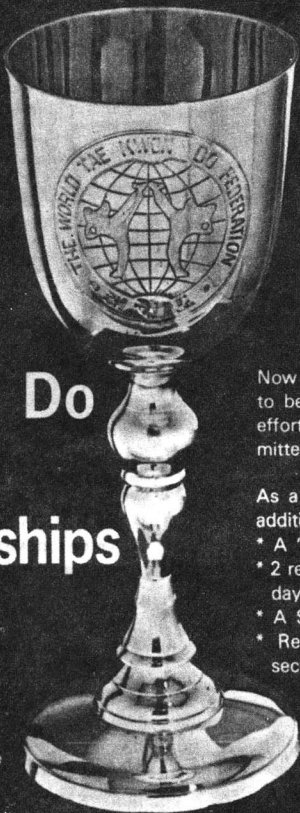
# Host the 3rd Tae Kwon Do World Championships

and receive this Souvenir Cup

(shown actual size)

Silver plated and engraved with the World Tae Kwon Do Federation symbol and that of the A.A.U.

This cup will be a keepsake for years to come.



The biennial games of the World Tae Kwon Do Federation will be held

Sept. 15, 16, & 17, 1977  
at the  
Chicago Amphitheater

Now *you* have the opportunity to be a host and support the efforts of the Organizing Committee.

As a host you will receive, in addition to the Cup

- \* A "Host" Lapel Badge
- \* 2 reserved seat tickets for the day of your choice
- \* A Souvenir Program
- \* Recognition in the "Host" section of the program

To: 3rd Tae Kwon Do World Championships  
Tournament Director  
5533 N. Broadway  
Chicago, Ill. 606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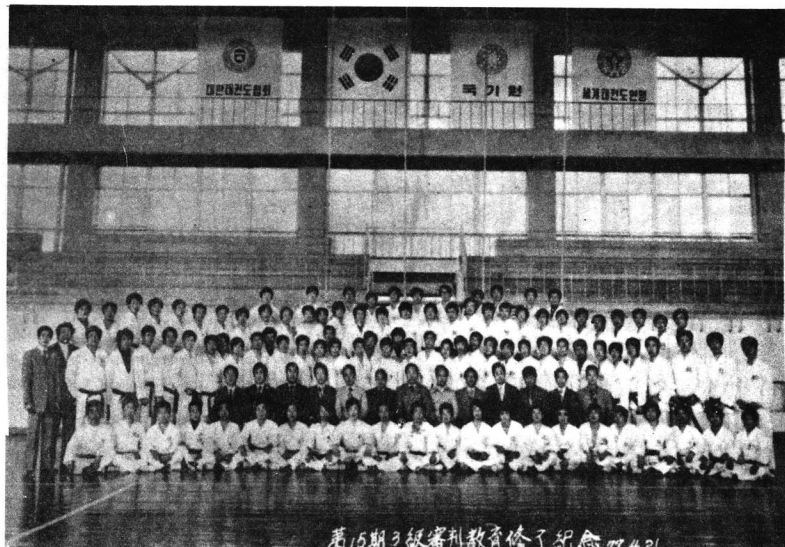
From:

Yes, I would like to support the Championships! I enclose my remittance for \$100.00 made payable to the 3rd Tae Kwon Do World Championships.



제19기 지도자 교육을 마치고  
 Graduation ceremony of the 19th  
 Instructor's training course. (12 March 1977)

제15기 3급심판 교육을 마치고  
 The 15th 3rd class Referee Training  
 Course. (21 April 1977)



제15기 3급심판 교육을 마치고  
 1977. 4. 21